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UL 6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64·865 1982년 7월 1일(목) & 2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 Friday, July 1 & 2,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외국인 재산등록규정 재확인

"국적변경전 재산처리하라"

시민권자는 1년내국내재산양도해야

한국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할자는 외국국적(시민권등)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재산을 외국인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1년 이내에 국내인에게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고 토론토총영사관이 재차 주의를 환기시켰다.

영사담당 박종선부영사는 28일 시민권취득후 국내에 남긴 재산처리에 관해 질문하는 교민들이 많아 본국정부로부터 확고한 해석을 다시 얻었다고 밝혔다.

24일자 한국외무부 공문에 의하면 대한민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상실, 토지법상 외국인 재산취득 규정을 지켜야 한다.

박부영사는"이곳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국적을 말소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국적을 상실한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한국의 법무부, 내무부를 통해 국내재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국적자는 인감증명위임자의 재외공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재산을 둔 사람으로서 외국시민권 취득자는 사전에 재산처리에 관한 문제를 완결짓는 것이 좋다.

재산상속권이나, 친족의 범위를 정한 한국법에는 외국인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의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국내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상 문제점은,
(1)한국국적 상실로 총영사관등 재외공관이 인감증명위임장을 발부하는 문제,
(2)규정을 지켜 처분했더라도 외화로 환불, 국외로 반출할때 생기는 문제등이다.

박부영사는 이점에 대해 외국인 인감증명위임장을 발부 받을 수는 없으나, 변호사의 공증을 통해 한국내의 재산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재산처분후 외화반출에 관한규정은 총영사관이나, 외환은행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총영사관측은 이 문제에 대해 본국정부에 전의, 유권해석을 얻겠다고 말했다.

외무부의 외국인 재산등록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재산권에 관한 지침

1. 외국인 토지법상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자.

가)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해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외국인 토지법 제7조 제1항),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때에는 30일이내에 토지취득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동법시행령 제2조), 만약 국적상실후 30일이내에 토지취득허가 신청을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1년이내에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됨.

나)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국적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므로 외국 시민권 취득자는 그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외국인 토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이 원칙임.

2. 인감증명법상 재외공관에서 인감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자.

인감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또는 동의서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 취득자, 장기체류자, 해외취업자, 외항선원들은 대한민국내에 인감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할 수 있으나, 외국 시민권 취득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므로 재외공관에서 인감위임장 확인을 받을 수 없음. (2면에 계속)

한 국 일 보
533-2361

社說

국가원수의 순방

—이민증가에 기대 건다

전두환대통령은 8월17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를 비롯, 검은대륙 아프리카의 4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아프리카의 네 나라에 대한 초유의 국가원수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관심사를 모으고 있으며, 외교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띤다 하겠다.

캐나다교포들의 관심은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에 집중되고 있다.

작년9월 한국에 갔던 트루도연방수상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모국정부의 정상이 우리의 생활권을 찾아온다는 사실은 시일이 다가올수록 찬·반간에 관심의 열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민현지에서 모국원수를 맞는 교포사회로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이 나라 사회에 자랑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민간외교·문화사절 역할도 겸해서 하는 진면목을 차제에 알려야할 것이다.

8월28일부터 4일간의 대통령체재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체교포수의 태반이 살고 있는 토론토에도 들러, 위로와 격려를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에 거는 교민들의 최대기대는 캐나다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이민길을 대폭 열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실효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점이다.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제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수이민자들은 민족그룹으로서의 존립을 위해 이민배가를 소망하는 것이다. 인력의 해외진출은 결과적으로 국력의 신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한국에 남아도는 잉여인력이 대거 이땅에 유입되도록 과단성 있는 조처를 취해 주기를 재삼 촉구한다.

북한장교들 중공에 망명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불만

(도꾜30일=연합)10여명의 장성급을 포함한 "상당수"의 북한군 장교가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 권력을 세습하는데 불만 품고, 중공에 망명했다고 도꾜의 〈통일일보〉가 보도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이용한 이 신문은, 이런 망명으로 북경과 평양간의 분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통일일보〉는 친한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신문이다.

지난6월 평양을 방문한 중공군사 사절단은 지난 4월과 5월 중공 북동부 만주를 거쳐 망명한 이들 북한군 장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달라는 북한당국의 요구를 유화시키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망명자들은 주로 북한군의 현대화를 요구하던 세력들로, 이들은 망명뒤 중공에 살고 있는 168만명의 한국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중공이 이들을 쉽사리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모스렘교도들이 하루 너댓번씩 바닥에 무릎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과 비슷한 위 사진은 「김일성종교」(Kimilsungism)을 믿는 10만명의 북한인이 지난 4월15일 평양서 열린 김일성 7순 생일잔치중의 한 장면. 무력강화와 지도자 우상숭배에 이성을 잃은 가난한 나라—북한에서 이 대규모 생일잔치는 3일간이나 계속됐다.(라이프잡지 6월호에서)

<6월28일 연방예산안 해설>

캐나다 경기 회복시킬지 의문

연방정부 알란·맥케큰(Allen J. MacEachen) 재무장관은 작년 11월12일, 12월18일의 수정안에 이어 28일밤 취임후 세번째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82·83 회계년도의 195억달러 적자 예상액은 지난 11월12일 예산안보다 $90억이 증가됐다. 그 주요원인은 $64억의 조세수입 삭감이다.

정부는 재정적 제한과 금년도에 예상되는 11%의 물가 상승율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의 국가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을 6%, 5%로 제한하고, 주정부와 일반기업체(Private Sector)들 에게도 유사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범국민적인 노력(National Effort)를 강조했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노년보조금(Old Age Security Pension) 인상률도 82·3년도 각각 6%, 5%로 제한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유아공제액(Child Tax Credit)은 임시적으로 유아1인당 $50만 인상한다.

획기적인 것으로는 물가지수에 인한 이자소득세(ITDC)와 재산매각소득세(RSIP)를 제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자소득자의 불리한 조건을 제거함과 동시에 국내 투자를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Recession)로 인한 불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주택자가 8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사가 시작된 신주택을 구입하면 $3,000의 현금보조.

◎중소기업, 농·수산업체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내구재(예: 장비,기계등등) 구입및 과학연구 비용에 대한 대부금의 4% 이자비용 보조.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농업주 보호대책, 농업신용조합을 통해 개인의 경우 최고 30만 달러, 동업체인 경우 50만달러의 대부금에 대한 4%의 이자비용 보조.

◎2억달러 고용창출 정책과 $3억의 투자장려책들을 마련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과연 캐나다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줄지는 의심스럽다. 제1·2차의 수정안에 이어 발표된 제3차 매케큰예산안의 새로운 조항과 교민사회 관심이 필만한 조항들을 간추려 보겠다. (2면에 계속)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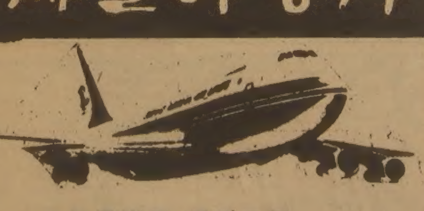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변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MR. 안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어린이 야구 선수명단 확정

입장식은 간략히, 내년에는 쥬니어부도

제1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리틀)야구대회가 하루앞으로 박두했다.

3일(토)상오9시 시합에 앞서 열리는 입장식에는 각팀의 입장에 이어, 캐나다국가 선창, 대회장 인삿말, 내빈축사에 이어 심판 소개, 한국일보사가 선수들에게주는 기념품증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구가 있을 예정으로 되도록 간략하게 치루어질 것이다.

금년에 한해서 입장식이 있다.

이날 시합을 위해 6개 참가팀(오샤와 세종한글학교, 연합교회, 천주교회, 침례교회, 통일어린이 야구단, 한인교회)는 지난 1~2개월 전부터 맹연습을 해왔다.

선수나이를 70년1월1일 이후 출생으로 제한(여자는 69년1월1일 이후), 실력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경기에 참가 못한다는 여러 참가팀의 불평을 감안, 본사는 내년부터 쥬니어부 경기신설도 고려중이다.

상으로는 1,2,3등 에뉴얼 트로피, 최우수선수상, 피쳐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이 있다.

각팀선수 명단및 본 대회 찬조자는 아래와 같다.

◎선수명단(무순·괄호안은 생년월일)

◆연합교회
감독:이영식
코치:이윤호·김회관
1.이래리 (70,10,29)
2.한앤드류(70,1,12)
3.윤테리 (70,7,10)
4.정도날드(70,7,27)
5.장 릭 (70,4,09)
6.최재훈 (70,3,20)
7.이리차드(71,12,30)
8.문피터 (71,9,20)
9.신브라이언(71,2,03)
10.김앤디 (71,6,29)
11.최 톤 (72,4,28)
12.박 샘 (72,)
13.이바비 (72,3,7)

◆천주교회
감독:신우원·김원도
코치:김정택
1.김민수 (71,4,3)
2.유영재 (71,2,14)
3.김애디 (70,8,20)
4.김충우 (71,7,17)
5.연태삼 (71,10,21)
6.권병연 (70,2,17)
7.박수현 (70,1,25)
8.김보성 (70,10,7)
9.김대니 (72,5,29)
10.김남철 (72,4,11)
11.호경수 (71,12,12)
12.박성호 (70,4,25)
13.홍재윤 (70,11,4)
14.최 훈 (72,7,26)
15.신국철 (70,6,23)

◆한인교회
감독:강용구
코치:함철호
1.이에므레(71,6,22)
2.변 릭 (70,11,18)
3.이유진 (70,2,7)
4.이토로 (71,8,4)
5.김찰리 (71,11,8)
6.한영호 (70,12,20)
7.조브라이언(72,3,24)
8.정 조 (72,10,22)
9.김매튜 (미확인)
10.변미영 (69,8,9)
11.함린다 (69,1,18)
12.박 상(73,12,16)
13.함글로리아(71,6,2)
14.전유진 (72,4,16)
15.정헬렌 (70,7,27)

◆통일어린이 야구단
단 장: 강신봉
부단장: 김문량
감 독: 김대천
코 치: 김대욱
1.강오수 (72,5,26)
2.이 선 (70,8,27)
3.김해영 (71,7,20)
4.이우태 (70,12,3)
5.이진복 (70,9,17)
6.기세진 (70,7,3)
7.백재민 (70,8,28)
8.함희석 (70,3,3)
9.김현준 (70,4,20)
10.김정직 (73,5,15)
11.김진아 (71,1,28)
12.김효직 (73,3,6)
13.김현직 (71,10,2)
14.이대벽 (70,11,28)

※침례교회와 오샤와 세종한글학교 선수명단은 30일 정오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못했음.

◆찬조자 명단
실업인협회(애뉴얼트로피)
박재선 (색연필120더즌)
연합상사 (팝 5상자)
이병권체육회장 ($100)
한국관 ($100)
최영식 ($ 50)
사대부고동창회 ($50)
브랜돈스포츠 ($50)
김종조종합보험 ($50)
윤방현 본사 자문위원 (팝 10상자)
강찬영변호사 ($100)

◆오샤와 세종한글학교팀.

◆김정택 천주교회팀 코치가 배팅지도를 하고있다.

◆침례교회팀이 캐치볼 연습을 하고 있다.

미술강습소 오픈

두명의 미술학도

토론토의 2명 젊은 미술학도가 미술강습소 「U.C. 페인팅스튜디오」를 연다.

올해 온타리오미대(O.C.A) 미술과를 졸업한 조중형씨와 요크대학미술과의 엄혁씨가 공동경영하는 이 화실은 초급반·중급반·상급반의 3개반으로나누어 초보 그림지도, 서양화(유화)를 지도한다.

수강생은 학생·일반어른이며, 7월1일 개강, 수업시간은 매주 월~토요일(6일간) 하오 6시~9시이다.(수강료 월 $70)

연락처: 1179 King St. West, #308(King×Dufferin) 전화: 530-4991

◆조중형씨

◆엄 혁씨

국내재산 처리법 기사 (1면에서)

3. 국적법상 권리양도의 범위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국적법 제16조 제1항), 상기 향유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지칭함.

4. 친족법, 상속법및 귀속재산처리법상 시민권취득자에 대한 제한 규정

가)친족법, 상속법에서는 시민권취득자라고 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없음.

나)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제2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시민권 취득자는 귀속재산을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없음.

5. 시민권 취득자와 영주권취득자의 법적지위상의 차이

시민권취득자는 국적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며, 영주권 취득자는 재외국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이 차이가 있음.

6. 대한민국법상 시민권 취득자와 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

시민권 취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므로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원칙임.

다만 외국인과 다른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될 수 있다는 점임.

(한국외무부 82년6월24일)

한인동창 야유회

세네카칼리지

세네카칼리지 한인동창회(Korean Senecar Alumni Association 회장·정재호)는 오는 2일(금) 페티코트 크릭(Petticoat Creek, Port Union×Hwy 2)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온타리오주 각대학 졸업생들의 전체동창회는 지난 3월 조직됐으나 학교별 동창회는 지난 2월27일 발족, 40여명의 회원을 가진 세네카동창회가 처음이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합동으로 모이는 이번 야유회에 대한 문의는 499-3893(정재호), 동창회측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교 민 동 정

◆송경란(성악가, 쏘프라노)=7월1일부터 갈보리 한인장로교회 성가대지휘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동안 임마누엘교회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활약, "키와니스 콩쿨"에 2회나 2등으로 입상한 실력을 과시, 갈보리교회의 성가대를 위해 온 정열을 다할 것을 다짐, 의욕에 차있다.

〈예산안 해설: 1면에서 계속〉

200억달러의 적자예산

공인회계사·현 영 일

①신축주택구입자·최초구입자 $3천 보조

②중소기업·농업자 사업자금 4% 이자보조

③이자소득세, 실질금리에만 과세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캐나다 자본화를(Nationalism)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법의 목표는 계속 견지하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시책을 마련했다.

◎$200만의 자본금과 100명의 고용인의 소기업체 기준을 $500만과 200명의 고용인으로 증가.

◎외국자본 관리하에 있는 캐나다기업체가 다른 외국자본 회사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체의 기준을 $1,500만과 600명의 고용인으로 늘인다.

◎중요한 정책적인 논점이 있을 경우, 위 조항에 관계없이 외국인 중소기업체 투자에 관한 전면적 재심을 한다.

▲중소기업 투자 보조 (Small Business Investment Grant)

◎내용: 캐나다 중소기업과 무한책임의 개인회사에 실제적인 이자비용의 4%를 앞으로 2년간 보조. 만약 이자율이 16%이하로 내리면, 12%이상에 대한 부분만 보조한다.(예: 15%이자면 3%만 보조)

◎심사대상: 재정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체.(현재의 중소기업개발 채권과 유사)

◎보조금대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내구재료를 새로 구입하거나, 과학적인 연구비용을 위한 대부금을 위한 이자액.(단: 대지와 자동차및 임대를 위한 부동산 구입은 제외)

◎대부금의 한계: 최저 $10,000, 최고 $500,000.

▲중소기업 채권 발행 (Small Business Bonds)

◎변동사항: 종전의 중소기업개발 채권 발행의 여부를 막론하고, 최고 $50만 이내에서 또 융자받을 수 있다. 이자는 우대금리(Prime Rate)의 ½에다, 1%내지 2%를 추가한다.(예: 현재 우대금리가 18%이면 실제 이자율은 10%~11%(9%+1~2%)이다.)

앞으로 사업확장 또는 새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상기 두가지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주택안 (New Housing Measures)

5항목의 부동산 촉진안의 내용을 보면:

1)1982년12월31일 이전에 착공한 신주택을 구입시는 $3,000의 현금보조(소득세 면제)를 받는데 현금지불(Down-Payment)은 보조액을 제외한 주택값의 최저 10%이상 해야 한다. 최초로 구입하는 이(First-Time Buyer)에게는 29일부터 금년말사이에 구주택을 구입하여도 이 현금보조를 받게 된다. 주택값의 제한과 온타리오주정부에서 발표한 신규주택융자정책(The Ontario Renter-Buy Program)의 $5,000을 합친 총현금 $8,000의 보조및 융자의 여부는 연방정부의 중앙주택금융공사(C,M,H,C)에서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지난 3월에 발표한 주택은 비용 보조로 $3천만을 책정한다.

3)주택금융 갱신안이 82년11월12일로 마감 예정이었으나, 1983년 12월31일로 연장한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주택금융(모기지) 불입액이 총수입의 30%를 초과할 경우, 현금으로(소득세 면제) 최고 $3,00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4)25,000동으로 계획했던 협동조합주택(Non-Profit or Housing co-op)을 27,000동으로 늘려 건설한다.

현영일씨

5)건축업자에게 주어왔던 동당 $7,500의 무이자융자금 한도액에 신축성을 보이며, 앞으로 18개월 동안 3,000동에 한해 계속 지원한다.

▲건축 기초 비용 (Soft Cost)

설계비, 광고비, 변호사비등 건축완료전 건축기초비용은 일반경비로 잡지않고, 조경비(Landscaping Cost)를 제외한 건축비의 원가에 포함한다.

▲회사의 재편성 (Corporate Reorganizations)

가. 양도세 면세 조항

양도세 면제를 제거했던 지난 11월12일, 제1예산안이 이미 12월18일 제2수정안에 의해 83년까지 연기됐다. 회사소유권이 이전될때 양도세 면제조항은 주식이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Convertible Property)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득세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어다.

나. 관리변경 (Change of Control)

비자산 매각 손실에 대한 면세이양은 회사소유권이 이전되면 제한을 받는다. 감가상각비로 관리변경과 같이 비슷한 제한을 받는다.

▲회사이익 분배시 (Distributions Tax by Small Business Corporation)

회사이익금을 주식배당금(Dividend)로 주주에게 분배할때 부과하면 12.5%의 이익 분배세는 1982년 12월31일이후 부터 적용한다. 급여액을 봉급과 주식배당금 할당으로 분류, 세금을 절약하고, 온타리오주에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회사(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peration) 소득세면제(Tax Holiday)를 이용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명보험에 의해 축척된 이자소득(Accrued Investment Income from Life Insurance Policies)

매3년 또는 1년마다 생명보험에서 축척된 이자소득은 29일부터 세무보고 대상이 된다. 면제보험증권(Exempt Policy)은 제외한다. 이에대한 자세한 세무규정이 곧 발표될 것이다.

▲잠재소득 (Reserves)

잠재소득은 매매계약이나, 또는 외상 판매할때 외상수입금을 말한다. 이 소득은 외상대금이 완불될때까지 소득세 보고를 연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1예산(1981년 11월12일)에 의해 중지 됐었으나, 이번 제3안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소득세 (Taxation of Individuals)

전례에 없던 물가상승(Inflation)에 따른 실질 투자소득 변경을 세무보고에 적용하는 제안이다. 이 안은 1982년8월31일까지 공청회를 거친후, 경제계 인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될 특별위원회가 9월30일까지 재무장관에게 전의한다.

가. 정기예금증서(Indexed Term Deposit Certificates)과 일반대출금(Indexed Term Loan), 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피해를 받아오던 예금주에게 세금을 절약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물가상승고(Inflation Rate)를 초과하는 실제적인 이득분만 과세대상이 된다. 지수에 의한 정기예금은 금융기관이 반드시 지수에 의한 일반대출금(Indexed Term Loan)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수에 의한 정기예금에 들기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유지비(Carrying Charges)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 몇가지 제한 조건은:

1)반드시 금융기관만 취급

2)캐나다에 세법상 영주를 하는자

3)최저기간:1년

지수에 의한 일반대출금은 신축가옥을 사거나, 또는 중소기업의 내구재료 구입하는데만 사용해야 한다.

나. 기명주주 투자 계획 (Registered Shareholder Investment Plan:R.S.I.P)

캐나다영주자(세법상)만이 이 투자구좌를 가질수가 있다. 현재 캐나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공회사의 보통주를 사고 파는데 따른 소득과 손실, 그리고 이자소득이 생길때 역시 실질금리에 의한 소득세만 세금을 납부한다. 이 투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은 기본공제액($1,000)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손실도 다른 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 할 수 있다.

다. 이자공제 제한

정년퇴직연금(R.R.S.P)을 들기 위한 이자비용은 공제 할 수 없다.

라. 회사차 개인이용에 대한 세제 (Automobile Benefits)

회사차를 이용하는 고용인은 그 혜택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혜택기준 금액(Standby Charges)은 고용인이 개인사용으로 일년에 12,000Km 미만을 쓰게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개인사용 거리수(Km) / 12,000Km × 24% 차량원가 또는 일년 임대료의 $\frac{2}{3}$

(본 예산안 해설은 핏·마익·미첼회계사무소의 한국부담당 공인회계사 현영일씨가 담당했다.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은 본사 편집부(533-2361)나, 현씨(416-863-3766)에게 연락바란다.

◆정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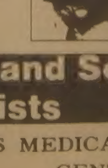
29일자 1면 고교동창야구 기사중 경기상고의 신성열 투수 나이를 55세라 한것은 52세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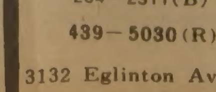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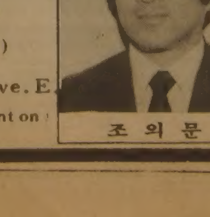
전 토론토한인천주교 회장을 지낸 신씨는 1929년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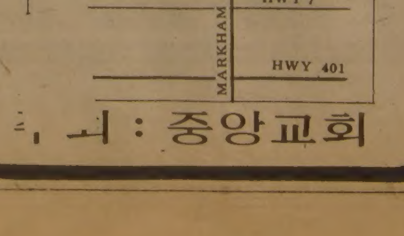
◆알 림◆

1일은 캐나다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캐나다·데이」(도미니언·데이) 공휴일이므로 이날 본사는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 1일자 토론토 현지판은 발행하지 않고, (한국일보) 본지(한국판)는 1·2일자(목·금요일), 3·5일자(토·월요일)를 각각 합쳐서 발행합니다.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여름가족 수양회
강 사: 한진관 목사(뉴욕퀸즈한인교회 담임)
기 간: 1982년7월7일(저녁 7시~7월11일아침)
장 소: PINE ORCHARD CAMP
연락처: 961-8361, 249-5461


주 최: 중앙교회

출발에서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535-6004 535-8801
SEOUL TRAVEL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293-9970
IATA

캐나다·데이 맞아 알아본 지명의 유래

7월1일은 캐나다·데이(도미니온·데이), 즉 캐나다가 탄생한 날이다.
1867년 영연방국가로 출발한 캐나다는 어떤 유래에서 "캐나다"란 이름을 가지게 됐고, 또한 온타리오주등 각 주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온타리오" "아름다운 물"

대부분 인디언말에서 유래

◆캐나다(Canada): 사상 최초로 캐나다란 이름이 유럽사람들에게 소개된것은 캐나다 첫 탐험자중의 하나인 자끄·카르티에가 1534년 세인트·로렌스강(캐나다 중동부지역 5대호와 대서양 연결)까지 여행한 뒤 지도에 캐나다란 이름을 적은때. 이말은 인디언의 Kan-a-ta 혹은 Kan-a-da해서 나온것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 마을이란 뜻이다.

카르티에씨는 지금의 퀘백시인 스타나코나에 도착했을 때 "카나타(Kanata)"란 이름을 듣고 지도상에 사구에니강과 퀘백시티 사이 지점에 "Canada"란 말을 명기했다.

◆온타리오(Ontario): 인디안의 한 종족인 이로키안어원으로 「아름다운 물」이란 뜻이다.

◆뉴·펀들랜드(New Foundland): 유럽의 어부들은 1510년 이 지역을 "Terre Neure"라고 불렀다가 1592년 "Terra Nova"(새)이라고 불렀다. 1502년대의 한 서류는 이 지역을 "The News Foundelaunde"라고 지칭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자크·카르티에가 이섬을 방문한 것은 1534년. 당시 프랑스령인 이 섬의 지명은 프랑스말로 "Ile-Saint-Jean"(일·셍·장)이었다. 1799년 루이스부르그 요새가 영국군에 함락되자 영국군 사령관 켄트공작(Duke of Kent)의 무궁을 기념하기 위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로 개명했다.(켄트공작은 후에 빅토리아여왕의 아버지가 됐다.)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 뉴·스코틀랜드란 뜻의 라틴어. 노바·스코시아로 불려지기 사작한 것은 1621년. 영국왕 제임스1세가 "이땅은 앞으로 뉴·스코틀랜드란 뜻의 노바·스코시아란 이름을 지니리라"라는 식민지령을 내린 이후였다.

◆뉴·브룬스익(New Brunswick): 1784년 독일의 하우스·오브·브룬스익에서 온 조지3세를 기념하기 위한데서 나왔다.

◆퀘백(Quebec): "좁은 수로", 혹은 "좁은 통로"란 뜻의 단어는 인디안족 알콩킨어의 "크레(Cree)"에서 유래됐다. 지도상에 최초로 나타난것은 1601년 "Quebecq"으로 쓰인것. 1609년초기 탐험가 참플레인은 좁은 세인트·로렌스강변에 현재의 퀘백시에 정착함을 묘사하면서 "Kebec"이란 말을 쓰기도 했다.

1759년 영국군이 아브라함고원을 정복한뒤, 퀘백이란 이름은 세인트-로렌스강변의 전 프랑스통치령을 일컫는 이름이 됐고, 1791년 영국의회가 「캐나다 조약」을 통과하기까지 이 이름을 그대로 통용됐다.

캐나다의 조약은 새식민지인 현재의 온타리오주에 어퍼·캐나다(Upper Canada)란 명칭을 현재의 퀘백주에 로우어·캐나다(Lower Canada)란 명칭을 부쳤고, 이때부터 「캐나다」는 어퍼·캐나다와 로우어·캐나다의 두 식민지를 통괄하는 명칭이 됐다.

1840년 「통합법」(Act Union)은 두 식민지를 통합 캐나다란 이름을 부쳤고, 어퍼·캐나다는 서부 캐나다(캐나다·웨스트), 로우어·캐나다는 동부 캐나다(캐나다·이스트)가 됐다.

1867년 연방법에 의해 노바·스코시아와 뉴·브룬스익이 캐나다의 식민지로 병합되자 다시 두개의 주로 나뉘어 캐나다웨스트는 온타리오로 캐나다·이스트는 퀘백으로 불리어졌다.

◆마니토바(Manitoba): (1)마니토파(Minnitopa)란 말에서 유래된다. 마니토파는 "물에 뜬 4구의 시체"란 말로 1785년 피터·폰드의 지도에 명기됐다.

(2)"마니토와포우"(Manitowapow) 즉, 「영혼의 협곡」이란 크리어에서 유래됐을 가능성도 있다. 인디들은 마니토바호수에 있는 마니토바섬의 해변에서 듣는 파도소리를 영혼의 소리로 믿었다.

◆사스캐추완(Sarketchewan): 크리어에는 「물결넘치는 강」이란 뜻의 키시스카추와니시피(Kisiska Chewani Sipi)란 말이 있는데, 이말이 차차 사스캐추완으로 변한 듯.

◆알버타(Alberta): 빅토리아여왕의 딸에 루이즈·캐롤라인·알버타란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부의 남편은 1881년 서부 대평원을 횡단한 마르키스·오브·론 캐나다 총독이었다.

◆브리티쉬·콜럼비아(British Columbia): 미국 무역선 콜럼비아호의 로버트·그레이선장의 이름을 따라 1792년 콜럼비아강의 이름이 붙여졌고, 1858년 빅토리아여왕은 미국과 국경 [redacted] 을 「영국의 콜럼비아」라는 뜻으로 브리티쉬·콜럼비아로 명명했다.

◆유콘·테리토리(Yukon Territory): 이 지역의 인디언들은 이곳을 지나는 강을 유카나(Yukkhana) 즉, "거대한 강"으로 불렀다. 유콘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은 허드슨스·베이·컴페니(Hudson's Bay Company) 직원들이었다.

◆노스웨스트·테리토리즈(North West Territories): 한때는 알버타, 사스캐추완, 중북부 마니토바, 온타리오주및 퀘백주 북부를 포함한 캐나다북부 전체가 이 이름으로 불리웠다. 유콘과 허드슨스·베이 사이의 땅으로 노스웨스트·테리토리즈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1920년이었다.

金聖鍾 작

지성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8>

冷血 ②

"안된다는 말 앞으로는 하지말아요…"

「기억하십니까?」

「……」

「벌써 잊으셨나 보군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가 무슨 문제가 될까.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까지 말이요. 한기수…38세…R상사…상무이사…수재헌인데 몸이 좀 약해보이더군요. 더 필요한가요?」

「그만, 그만해요!」

허덕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왜 그렇게 놀라는 거요? 난 반가와 할줄 알았는데…」

철컥하고 전화가 끊겼다. 그는 악마처럼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조금 후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한참 후에야 신호가 떨어졌다.

「여보세요.」

점잖게 무거운 음성으로 상대를 불렀다.

「말씀하세요.」

아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례한 여자군. 인사도 없이 도망치더니 전화 받는 것도 형편 없지 않은가.」

「전화 걸지 말아요.」

「지금 바로 나와요.」

「나갈 수 없어요.」

「나와야 해. 지금 당장! 내가 집으로 찾아갈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나와야지. 난 돈 한 푼 없이 당신을 만나러 왔단 말이야.」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음 여자가 결심한듯 물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朴 男 그림

「W호텔 25층 15호실…」

「안돼요. 다른 데서 만나요.」

「안 된다는 말 앞으로는 하지 말아요. W호텔 2515호실, 기다리고 있겠다.」

이번에는 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었다. 육체의 향연을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예의니까.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샤워를 하다말고 밖으로 나갔다. 방문자였다.

「왜 걸었지?」

「거기에 있나 확인해 보려구요.」

「확인했으면 끊으시지.」

「다른 데서 만나요. 거기는 정말 싫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아 그렇지. 한기수씨 회사가 바로 부근에 있던가. 잘 됐군. 드릴이 있어서 말이야. 아, 여기서 바로 회사가 훤히 보이는데…. 난 지금 옷을 벗고 목욕중이야.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잔말말고 한 시간 내로 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주간女性

〈꽁뜨〉

이민도시 I

서 만 수

서만수씨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전신을 감아온다. 창가에 걸터앉은 인철은 좌우로 목운동을 해본다. 작년부터 시작한 간질증세 후론 가끔 몸이 굳어지는 것같아 몸에 어떤 부분이라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에 몸의 여러 곳을 움직여 주곤 한다.

인철이 몸담고 있는 이곳 아동보호소에는 별의별 아이들이 많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면 모두들 가끔은 우울해지곤 한다.

인철처럼 창가에 걸터앉아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내다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높게 싸인 철조망를 으로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행렬을 한없이 지켜본다든지, 눈에 익은 이 좁은 아동보호소 어느 구석에서든지 우울한 친구가 많았다.

길게 벨이 울린다.

"오늘 점심메뉴는 무엇일까?"

매일 같은 빵조각, 비슷비슷한 고기덩어리들, 언제 김치와 밥을 먹어보았던가 하는 의심조차 들면서 오늘따라 김치와 밥 생각이 강렬하게 식도를 자극한다.

"쓸데 없는 생각이야."

인철은 곧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 놓여진, 이름도 모르는 음식을 헤집어 버린다. 그 사이로 동생 성철의 얼굴이 웃고 있다.

"자식! 요새는 자주 오지도 않는군. 하기야 학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파타임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

"형! 나 요번에 축구팀 주장으로 뽑혔어. 형이 있었더라면 형이 주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야. 모두들 형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갔다고 했어. 모두들 형을 기다리고 있어. 코치선생님도 그러고, 돼지같은 TOM도 말야. 요번 시즌에 형이 빠져 우승하기가 힘들다고 모두들 걱정도 하고 말야…"

걱정스레 말하는 성철의 얼굴을 보고 인철은 씁쓰레 웃어버린다.

인철과 성철은 학교에서 무척이나 인기가 있었다. 두 형제가 같이 축구부에 들어간 것부터 주목을 끌었고, 두 형제의 콤비플레이가 상대편을 꺾히고 골을 넣었을 때, 둘은 그 학교의 축구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형, 앞으로 자주 올 시간이 없을 것같애. 요새 아버지는 직장도 자주 빠지시고, 매일 술만 자시고, 친구들을 모아 화투나 포커 하시기에 바빠. 가끔 술에 취하시면 어머니 이름도 부르고, 형이름도 부르곤 해. 빨리 엄마가 아버지랑 화해하시고 들어오셔야 할텐데, 이제 나도 지쳤어. 모든 빨래, 음식, 설겆이, 청소-모두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걱정스레 애기하는 동생 성철을 바라보며 인철은 손끝으로 전해오는 떨림에 의해 곧바로 성철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술을 잘했다. 캐나다에 오신 후론 더욱 더해, 자주 어머니와 말다툼까지 벌이기 일쑤였다. 툭하면

"야! 이녀석들아, 이 애비가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 자식새끼 때문이야. 이 애비가 이곳에 와서 이 무슨 고생이냐? 내가 한국에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지금은 부장이나 상무자리는 앉아있을 거다. 여기선 말도 못하지. 검둥이 녀석들조차 나를 무시하고, 놀림이나 당하구 말야. 더군다나 늬 에미는 나 알기를 ×같이 알고 말야. 그래 너희 할머니가 생신이라고 돈 100불을 송금했더니 자기도 자기 친정엄마에게 100불을 보낸다는 거야."

그 소리가 끝나자 마자 방안에 있던 어머니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온다.

"그래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자식새끼를 앉혀놓고 술주정을 해요? 남들은 한국에서 왕년에 뭐뭐 했었다고 해도 여기 와서 지렁이만 잘 잡드만 당신은 뭐가 어째서 매일매일 그 놈의 옛날 생각이나 하구, 술이나 퍼마시구, 당신만 여기서 돈 벌어요? 나도 여기서 일주 40시간 뼈빠지게 일해 돈벌어 우리 어머니께 돈 100불 송금한다는데 무슨 내가 큰 일이나 저지른 것 모양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새끼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요?"

두분은 한달에 몇번씩 이렇게 싸웠다. 이런 싸움 후에는 인철과 성철은 며칠동안 숨도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가끔성철이,

"형, 왜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래? 형이랑 나는 부모님 속썩혀 드린 적도 없잖아. 용돈도 우리가 벌어쓰고, 공부도 중간성적인데 말야…."

"형! 우리, 학교 집어치우고 돈이나 벌까?"하고 물을 때마다 인철은 알밤을 한 대씩 쥐어박고는 축구볼만 차고, 또 차곤했다.

"인-철, 치료받을 시간이예요."움칫 놀라는 인철을 보며 간호원이 다가온다.

"싫다, 매일 맞는 주사바늘이."

그렇지만 반항할 여지가 없다. 천사같은 간호원이 아닌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그녀에게 반항했다간 며칠 식사를공급받지 못할 것같다. 이곳에는 한국사람이 인철 혼자밖에 없다. 간호원이나 의사선생의 묻는말 이외는 말할 상대도 없다. 모두들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무표정일 뿐. 가끔 찾아오는 성철이외는 대화상대도 없고….

처음 이곳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아버지와 목사님이 같이 오셨었다. 반가운듯이 벌려오는 아버지의 두 팔을 뿌리치며, 인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지쳤어. 내앞에서 없어지세요!"

그리곤 정신을잃었다.

토요일까지 오버타임하고 들어온 어머니가 곧 지렁이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렸다.

"저녁때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음식이나 좀 장만하지."

"그놈의 친구들은 우리 집 밖에 올 데가 없대요? 그것도 매일 모여 술타령이나 하고, 새벽까지 놀음이나 하고,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음식을 만들든지, 사서 먹든지 알아서 하구료. 난 시간이 돼서 가야 하니까."

"뭐라고! 이제는 남편 보고 밥까지 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 주말에 친구끼리 모여 술타령도 하고, 조금씩 놀음도 하고, 그러는 것 당신이 이해해야지, 이 이민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이젠 지쳤어요."

뒤이어 더 큰 소리가 인철의 귀를 어지럽힌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왜들 그러실까? 왜들…."

"당신 혼자 잘 살아보구려. 자식새끼들 나도 귀찮으니까 당신이 기르든지, 죽이든지 난 모르겠으니까."

하고 나가버리는 어머니를 보곤 아버지가 술병을 집어던진다.

"나가라 이년아! 너같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을 잡아먹는 년은 필요없다!"

나가라는 말에 방문을 열고 나온 인철을 보고 아버지가 대뜸 소리를 지른다.

"넌 뭐야!"

아버지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얼굴이다.

"이 자식, 너도 없어져 버려!"

아버지의 눈이 벌겋게 달아, 인철의 여린 두 눈을 쏘아본다.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비행기의 굉음이 인철을 어지럽힌다. 방안이 움직이고, 아버지의 벌건 두 눈이 따라 같이 돈다. 그리곤 인철은 쓰러졌다.

"형! 의사선생님이 간질병이래. 간질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곳에서 치료받으면 날 수 있다고 하니깐 응, 형! 그리고 그 일후로 아버지와 어머님이 별거중이야. 나는 지금 목사님집에 당분간 있게될 거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당분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떨어져 서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하셔. 형! 내가 자주 올께.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 나 요새는 일주에 파트타임해서 100불은 벌어."

멀어져 가는 성철을 보곤 인철은 아무 표정도 느낌도 가질 수가 없었다.

그후론 성철이 가끔 찾아올 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별거중이고, 어쩌면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 이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친숙해진 이 아동보호소에서 인철은 또 하루를 맞는다.

여름공부 실시

한맘한글학교

토론토 한맘한글학교(교장 허영식)는 7월4일(일)부터 8월15일까지 여름공부를 실시한다.

공부는 아침 11시부터 낮 1시30분까지 2시간30분간 한글을 가르친다.

한국일보
533-2361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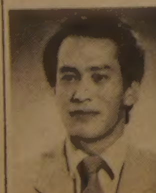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들

◉ Variety and Hardware
-주매상 6천불선, 좋은 이윤, 스카보로 동쪽에 계속 커지고 있는 마을로서 코너의 요지에 위치, 좋은 전망, 2 Br.포함한 건물과100×100 상가의 대지도 함께 매매 가능, 아스킹: 비지네스 $59,900, 건물과 대지는 $179,000, 아주 좋은 모기지 가능.

◉Hamburger Shop
-한 가족에 적합한 사업, 미시사가의 아파트촌에 위치, 좋은 조건에 옆방에 확장도 가능, 렌트: $350 주매상: $1,800 아스킹: $35,900

◉사진 현상업
-일요일 휴업, 힘든일 없으며 최소의 장소에서 최대의 효과, 년 순수입: $80,000 이상, 좋은 모기지, 아스킹: $319,000

★이 외에도 각종의 부동산과 사업체들이 있읍니다.

문동환박사 초청

청년수양회

주제 :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세"

대 상 : 25세 이상
회 비 : $2.00(둘째날만)
⊙첫째날 : 1982년7월9일 금요일 오후7시30분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EST
☎ : 925-6261 ☎ : 925-0917
⊙둘째날 : 1982년7월10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5시30분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EST
☎ : 925-6261 ☎ : 925-0917
연락처 : ☎ : 293-8162
참 고 : ●BABY SITTING과 어린이를 위한 PROGRAM이 양일간 모두 준비되어 있읍니다.
●둘째날에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PANELIST : 이상철 목사

주관 :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청년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실협회원에 프로모션 지원

7-up, 1.5리터에 99센트

◆마크·베나디바

지난 2개월간 협상을 계속해온 협회는 28일 7-UP의 세일즈매니저인 Mark Benadiba와의 마지막 회담에서 본 실업인협회 회원에만 적용되는 특별Promotion을 획득했다.

협회 차선결회장은 그간 7-UP의 관계자들과 협상에서 팝회사들이 실협을 여타 체인스토아나, 슈퍼마케트와 차별대우하는 경우, 불매운동도 불사한다는 전제하에 끈질긴 협상을 시도한 결과, 제1차로 1.5리터 7-UP과 diet 7-UP에 대해서 99센트(일반가격 $1.49)로 3주간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특히 이번 Promotion은 시중은 Mac's나, Becker's는 물론 Loblaw나 Dominion같은 Chain Supermarket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비록 한인업체라 하더라도 K.B.A.회원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Promotion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품목–1.5리터 7–UP과 diet 7–UP

▲가격–99센트(일반가격 $1.49)

▲기간–7월5일(월)~7월23일(금) 3주간

▲이윤–Net Wholesale $4.45+dep, Retail 99센트($5.94 c/s), 이익 $1.49 c/s당), 이익율 25%.

▲조건–최하 20 c/s 주문, 6 c/s display

한편 Chain Supermarket에 대해서는 7월19일부터 $1.09에 Promotion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당업·도너츠숍의 조직화

실협의 기치 아래서

토론토지역의 카페테리아및 요식업을 경영하는 한인들이 실협의 산하에서 독립된 그룹을 형성,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와 공동구매활동을 위하여, 그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그룹활동의 추진위원으로는 현재 실협이사인 서동준및 김응하씨이며, 관심있는 레스토랑업자의 참여를 바라고있다.

한편 코너스토어업 이외에 주류를 이루고있는 한인 도너스업자들도 공동구매활동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강준남, 조충원, 정영택씨등이 주동이 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연락처 : 협회사무실

실버우드 리베이트 신청

6월11일자 실협뉴스에 공지된바와 같이 6월14일부터 실시되는 실버우드아이스크림의 「신규 리베이트」적용 실시에 따라 신규거래 희망 회원뿐아니라, 이미 거래하고 있는 회원들도 반드시 협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게되어 있다.

이미 많은 회원들이 신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마감일인 6월26일은 경과하였지만, 속히 신청하여 차후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한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Richvale 냉동장비회사 협회원에 할인봉사 제의

General Check-up 년50불

지난 수년간 캔코전기회사(Canco Electric Co.)를 경영해 온 교포실업인 오현구씨는 5월중 토론토의 중량급 냉동장비 회사인 Richvale Heating & Cooling Co., Ltd. (140 Midwest Rd, Unit 12, Scarborough)를 인수, 실업인 협회원에게 특별써비스를 했다.

리치베일 냉동장비 회사의 대표 오현구사장은 몇년간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 협회원들이 상점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General Check–up을 받으므로서 예고없이 발생되는 고장(Break–Down)을 피할수 있는데도 불구, 항상 고장시에만 써비스를 원하므로서 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협회원에 한하여 년50불이면 상점장비 전반에 걸친 General Check–up을 해서, 점검후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해여준다고 한다.

Richvale 회사가 협회에 제의하여온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emand Call–시간당 $28.00(20% Discount)

▲parts & Materiel–List Price에서 30% Discount

▲년1회 예방정비–$50내외

▲자격증 소유한 종업원이 24시간 가동

▲사업분야–냉동·에어콘·히팅

▲점검–Compressor, Eondensor, Filter, Evaporator, Controls, Refrigerant Circuit

▲춘계 에어콘 점검

▲작업보고서에 건의사항 기재하고, 원하면 견적첨부.

▲연락처: 752–0404

무료법률상담실 신설

수요일 12:00 ~1:30

지난2월 컴플레인 상담실의 개설이후 회원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전문적인 법률문제를 다룰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Legal Clinic)을 협회내에 신설하고, 7월7일(수)부터 그 활동을 개시한다고 한다.

◆랄프·로빈.

상담역은 협회의 추천변호사인 랄프·레빈씨가 담당, 회원의 법률적인 문제점및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본인의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특별히 협회회원을 위하여 무봉사하기로 하였다.

상담분야는 법률문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것으로서 제한이 없으며, 상담이 어려운 특수한 법률문제는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 알선해 줄 것이라고 한다.

협회는 많은 회원들의 이용을 희망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전에 협회사무실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한편 로빈씨는 한인교포들이 가장 소홀히하는 문제중의 하나이며, 북미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정문제의 하나인 유서(Will)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수회에 걸쳐서 실협뉴스에 기고한다.

유 서(Will)

Ralph M. Levine
강공선 역

유서를 작성해놓지 않으면?

온타리오주가 법으로 유서를 작성하게된다. 사망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주법에 따라서 재산이 처리되는 것이다. 유서를 작성해놓지 않으면 유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고, 또 유산관리장(Letter of Administration)을 받기까지 상당한 경비와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즉시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사망자의 재산은 시장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의사나 요구는 일체 고려가 되지 않는다. 법이란 냉정해서 사업을 경영해 주지도 않고, 재산과 자본을 유보해 주지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주어질 유산이 성년(Majorty–18세)에 달할때까지 법원에 보류되는 수도 있다.

유서란 무엇인가?

유서라는 것은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사망자의 희망을 기준한 법률문서이다. 사망자의 여건에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 재산을 분배하는 유일한 방법이 곧 유서이다. 유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면 최소한의 세금과 경비로 수혜자가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에게 충분한 유산을 남겨주고도 그 재산을 광범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유서는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지만, 본인의 변동하는 상황에 알맞도록 수시로 재점토 할 필요가 있다. 유서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서류를 유언보족서(Codicil)라고 한다. 사소한 수정만을 요할때에는 이것이 전체 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유서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인(18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서를 작성하는데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자신과 가족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재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재산의 목록을 작성한다. 상속자를 정하고,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고 유언집행자(Executor)에 대한 지침을 명시한다.

재산분석은 자격있는 고문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나, 공증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가장 적법한 유서를 작성함으로서 재산관리 기간중 아무 걱정없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해야 하다.

끝으로 유언집행자를 선정하고 유서에 서명하면 되는 것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광고주를 찾읍니다!
연락처 : 533-2361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년매상	종전리베이트	회사장비	자기장비
$3,900~5,200	10%	10%	18
5,200~7,800	12	18	22
7,800~10,000	15	19	23
10,000~12,000	16	20	24
12,000 이상	16	22	25

이미 실버우드아이스크림을 거래하고 있던 회원도 신규리베이트를 적용받고자하는 회원은 협회로 신청요망.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Jack Nicklaus, Looking Good

일　　시 : 1982년8월2일(월)오전9시
장　　소 : Richmond Hill Golf Club
참가자격 : 회원
참가인원 : 150명
참 가 비 : $35(저녁식사포함)
신청접수 : 협회사무실(533—7923)
신청마감 : 1982년7월5일
준비위원 : 조기연. 배경락. 심태섭

시　상

Gross Champion(Annual)
Net Champion(Annual)
Gross 1. 2. 3. 4. 5등
Net A조(89이하)1. 2. 3. 4. 5등
B조(90—99) 1. 2. 3. 4. 5등
C조(100이상)1. 2. 3. 4. 5등
Nearest to Hole
Longest Drive
Most Honest

◇각종공급회사및 도매상들이 제공한 많은 부상들이 있으며 특히 Rosen Dairy. Canada Bread. Silverwood등의 회사들이 제공한 라스베가스·아트란타·아카풀코등 왕복 숙식권이 매 Par3마다 있음.

◇작년과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Tee-Off time을 사전에 작성. 발표코자 하오니 신청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소집공고

회칙 제15조1항에 의하여 제3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 시 : 1982년 7월11일(일) 오후5시
장 소 : 김태진 이사장댁
(36A St. George Blvd.
Weston, Ont.
☎: 244—5124

안 건 : 집행부 업무보고
(TORONTO SUN불매운동여부)
집행부 재정보고
각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기타

◇부부동반 참석을 바랍니다.

1982년 6월26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金利·法人稅率 인하

대출10·예금8%로

金利체계單純化

法人稅率 내년부터 20%

第一·信託銀 연내 民營化

정부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경기를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등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키위해 은행대출금리를 현행연14%서 10%로 4%포인트, 법인세율을 현행 33~38%에서 (公開 非公開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로 대폭인하하는등 금융세제면에서의 획기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제도 개혁작업을 계속추진, 올해안에 第一은행과 서울信託은행을 민영화하고 내년중에 朝興은행을 민영화 하기로했다. 또한 대출금리인하에따른 자금수요에부응키위해 총통화공급을 올해 연간증가율 25%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수요에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했다.

컬러TV 特消稅를 28%로인하
自動車탄력稅率 年末까지 延長
1千여 優良중소기업 重點지원

金副總理, 경제活性化대책 발표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경제는 현재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적자가 많이 줄어드는등 안정기반이 크게 개선되고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수요부진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저조한 형편이라고 지적,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기위해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金부총리가 이날 밝힌 「투자촉진을통한 경제활성화대책」은 금리및 법인세율인하외에도 紙上配當稅의 완화와, 자기자본증자분에대한 주주의 소득세공제확대등으로 자기자본을 이자놀이하는 것보다 사업에 투자하는것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며 소득세율의 인하및 私債양성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또한 수요촉진을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시한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18인치초과 대형 컬러TV에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40%서 28%로 내려주기로했다.

또 우량중소기업을 중점육성키위해 기계부품업체를 중심으로 1천개이상 중점육성업체를 선정,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시설및 운영자금을 집중지원하며 중소기업에대한 신용대출은 재무상태보다 장래성에 중점을 두어 과감히 확대하고 신용보증으로인해 信用保證基金에 貸損이 발생할때는 정부가 추가적인 출연을 해주기로했다.

주택부문에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소득수준이 미약하여 거래가부진한점을 감안, 대책을 강구키로했다.

또한 민영화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금융감독원을 육성,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했다.

또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짐에따라 해외차입을 끼리는 사태를 막기위해 원자재나 외국기자재는 차관이나 무역신용 또는 외화대부등을 이용토록하고 국내에서 조달된 금융은 국산기자재구입에 쓰도록 주거래은행을 통해 적극적으로지도키로했다.

金부총리는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가동률 생산 투자가 늘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6~7%가 무난히 달성될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상요인에의한 저축증가분이 실물투자쪽으로 돌아가게되어 저축이 다소 줄어들것이나 정상적인 예금증가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輸出지원등「優待」철폐
企業부담경감 年5천억원 규모

한국은행은 27일하오7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 대출금리를 4.0%, 예금금리를 4.6%씩 각각 대폭적으로 인하, 28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이에따라 은행대출금리는 年14.0%에서 10.0%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年12.6%에서 8.0%로 내리게됐다.

이번금리조정에서 한은은 수출지원금융등 정책금융에대한 우대금리를 모두철폐, 모든 은행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年10%로통일했다.

예금에 있어서는 통지예금과 6개월만기정기예금을 폐지하고 2년이상 정기적금의 기간구분을없애 종목을 단순화시켰으며 금리도 보통예금을 年1.8%, 3개월만기정기예금과 1년만기 정기적금을 年7.6%로하는외에 모든예금금리를 年8.0%로단일화시켰다.

한국은행은 이번의 대폭적인금리인하가 ①현재 물가가 현저히 안정돼있고 앞으로도 같은추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돼 금리인하의 여건이 조성됐으며 ②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금리대폭인하의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단행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조정으로 은행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 예금의 경우 戰時인 지난51년10월4일의 年4.8%(1년만기 정기예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은 지난 50년6월9일의 14.6%와 82년3월28일의 14.0%보다도 훨씬낮은 사상최저 수준이됐다.

금리가 이처럼 대폭 인하됨에 따라 국내 금리와 국제금리간의 격차도 더벌어지게 됐는데 年16.5%수준인 미국프라임레이트와는 6.5%, 年16.0%수준인 리보(영국은행간금리)와는 6.0%차이로 국내금리가 더낮은 수준을 유지하게됐다.

그러나 年6.42%인 日本의 일반대출금리보다는 아직 우리금리가 더높은편이다.

한편 이번의 은행금리인하로 기업들이 받게될 금리부담경감효과는 향후 1년간 5천억원규모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金利인하 내용

▲예 금 (연,%)

	현 행	개정	인 하 폭
정기예금 1년이상	12·6	8·0	4·6
6개월이상	12·2	폐지	—
3개월이상	12·0	7·6	4·4
정기적금 3년	12·6	8·0	4·6
2년	12·0	8·0	4·0
1년	11·4	7·6	3·8
통지예금	8·4	폐지	—
보통예금	1·8	1·8	0
저축예금	12·0	8·0	4·0
가계종합예금	12·0	8·0	4·0

▲대 출 (연,%)

	현 행	개정	인 하 폭
상업어음할인 적격	13·5	10·0	3·5
기타	14·0	10·0	4·0
기타어음대출 우량	13·5	10·0	3·5
기타	14·0	10·0	4·0
적금관계대출 우량	13·5	10·0	3·5
기타	14·0	10·0	4·0
당좌대월 우량	14·0	10·0	4·0
기타	14·0	10·0	4·0
[illegible]론 우량	13·5~15·5	10·0	3·5~5·0
기타	14·0~16·0	10·0	4·0~6·5
중소기업자금	13·0	10·0	3·0
수출지원금융	11·0	10·0	1·0
에너지자금	11·0	10·0	1·0
연체대출	22·0	18·0	4·0

「後續」내일發表

정부는 6·28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30일 발표할예정이다. 후속조치는 ①私債양성화방안②個人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③農外所得사업의 적극추진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봉급생활자들에대한 대폭적인세금경감과 농외소득사업 추진에의한 농촌구매력 확대는 침체된 수요를 환기시켜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훨씬 낮아지게된데서 오는 외자도입기피 내지 외債조기상환현상등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夏穀 전량收買
代金도 현장서 全額지급"
어제 農水算委

국회는 28일하오 農水産委를열고 정부측으로부터 금년도 夏穀收買및 가뭄의現況과 對策에대한 보고를듣고정책질의를벌였다.

이날밤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與野의원들은 農民의生産費보상과 生産의욕의 고취및 主穀증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예정하고있는 10%선보다 훨씬 높은수준으로 하곡수매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보다 恒久的이고 근본적인旱害對策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朴鍾汶 농수산부장관은 이날 보고를통해『금년도 夏穀총생산량은 작년보다 51만3천석이 적은 6백14만 8천석으로추정된다』면서『이중농가에서 收買를 희망하고있는 3백50만석 全量을 수매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夏穀收買가격은 ▲농가에 대한 실질임금보장 ▲전체물가의 안정과 조화 ▲일반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水準으로 책정하겠다면서 수매기간은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45일간으로 예정하고있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어 夏穀수매시에 民怨을 없애고 부조리를 예방하는 한편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수매代金은 현장에서 全額지급하여 公課金이나 農協부채등의 控除를 막고▲等級別 표준품게시와 異議신청시 當日 再檢査실시등으로 검사의 객관화및 出荷농

"旱害극복 對策은 지방地形에 맞게"
全대통령, 慶南지역 시찰

【馬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8일상하오에걸쳐 慶南 密陽,昌寧,陜川,山淸郡일대의 旱害지역을 시찰하고 가뭄극복작전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시찰에서 『소류지 지하수개발 관정등 각곳의 지형에 맞는 근본대책을 세움으로써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는 가뭄에 대비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양수기의 배분도 水量과 지형에따라 마력수를 잘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하늘만쳐다보던 옛날과는달리 지금은저수지 양수기등 기계와시설이보급되어있어 지혜를 동원하면 天災도人力으로충분히 극복할수있는시대』라고 말하고『人力으로극복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고 며칠남지않은移秧適期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한해대책은 절한장에 뛰어들어 水脈을찾는등 실정에맞는대책을 세우도록하라』고 관계관에 지시하고 지역사정에맞는 農外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콜럼비아號 비행順調
어제予正 發射성공
地上군사基地와 첫交信
첫 軍事실험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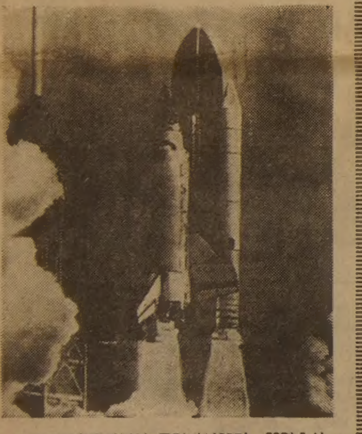
【케이프 카나베랄(플로리다州) 27日UPI·AP=聯合】미국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27일 상오11시(한국시간 28일0시) 최초의 극비군사 임무를 수행하게될 7일간의 제4차 최종실험비행을 위해 케이프 카나베랄의 39A발사대를 떠나 38분뒤 궤도에 진입, 순조로운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토머스·매팅리기장(46)과 헨리·하츠필드부기장(48)등 2명의 우주인을 태운 콜럼비아號는 수십만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왕복 여행사상 처음으로 예정시간에 정확히 이륙, 2분12초후 고체연료추진 보조로키트 2개를 대서양상에 떨어뜨리고 38분뒤에는 지상 2백40㎞의 궤도에 진입했다.

이어 매팅리기장은 2시간후 거대한 화물칸을 활짝 열어제쳐 냉각장치를 우주에 노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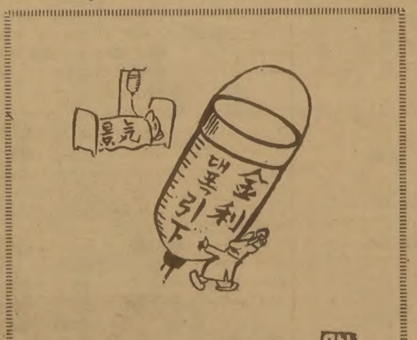
미국독립기념일인 오는7월4일 지구로 귀환하는 콜럼비아號는 7일간의 비행기간중 우주왕복선에 최초로 탑재된 극비 군사장비들을 실험할 예정인데 미국방성은 「DOD82·1」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이군사장비에 관해 철저한 비밀을 지키고 있으나 장비중에는 조기경보 인공위성이나 기타 우주감시체제에 사용될 적외선망원경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카나베랄27日UPI=聯合】우주왕복선으로는 최초로 군사활동임무를 띠고 28일0시(이하 한국시간)케이프카나베랄을 떠난 콜럼비아號의 우주인들은 이륙6시간후 지상의 한군사기지와 첫번째 교신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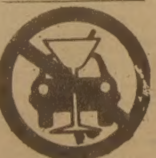
◇美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가 28일 0시 (한국시간)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장을 이륙하고있다。【케네디우주센터 (美플로리다州) 27日 AP電送=聯合】

社會漫評



마지막 投藥?!…

地平線



어느 天折한 가수가 불렀던「돌아 가는 삼각지」。그 노래처럼, 타원형의 램프를 가졌다고 해서, 서울의 名物로 꼽혔던 삼각지 입체교차로는 지금 일부 철거공사가 진행중이다。「돌아 가는」그 시설의 멋은, 노래의 주인공의 듯, 겨우 15년의 수명을 재촉받고 있는 것이다。

▼68년말 개통된 삼각지 교차로는 3억1천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그 때로는 적잖은 돈이다。그러나 이교차로의 치명적인 단점은「돌아 가는」그 멋에 있었다。그 구실은 로터리를 그냥 들어 올린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그 위에서 방향이 다른차량들이 뒤얽히게 되고, 도너트 모양의 4귀에서 차가 서야 하는「盲點」이 드러 난것。

▼그래서,「돌아 가는 삼각진」가 한창 불리던 무렵부터, 이 구조물은「서야하는 입체교차로」로 남아있었다。어느 교수의 말을빌면, 그것은「名物」이 아닌,「한국기술의 수치」-。그는 타원형의 램프가 없이, 그대신 공사비는 2분의 1로 족했을 代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삼각지는 값비싼 실험이나 다름 없었다。그 결과는 交通工學없는 교통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돌아 가는 삼각지」를 새삼 생각나게 한 것은, 25일 개통된「2층다리」盤浦大橋가,「1층」만 있을 때보다 더 붐빈다는 신문보도다。盤浦大橋는 4차선 다리위에 6차선 다리를 얹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하면 교통처리 능력이 배이상 는셈이 된다。그런데도, 러시아워 1분간에 94대이던 차량통행이 1백40대로 50%가량 늘어났다고해서 체증이 생긴다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한가지는「1층」과「2층」의 교통량 배분이 잘못된데 있다고 지적된다。그 설명은 이렇다。다리 남쪽에 4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直進하는 차량만이「1층」을 이용할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되어 있다。그러나 直進교통량이 많지 않으므로,「1층」은 한산하고「2층」에만 차가 밀린다 -。

▼2백15억원의 공사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다。그만한 공사를 하면서 세밀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일까。아쉬운 것은 역시 交通工學이다。부대시설이나 통행방법 때문에, 모처럼의「2층다리」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스개나 다름 없는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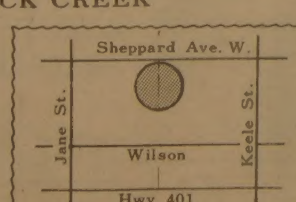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태권도인의 야유회

금번 한인태권도협회의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태권도 동호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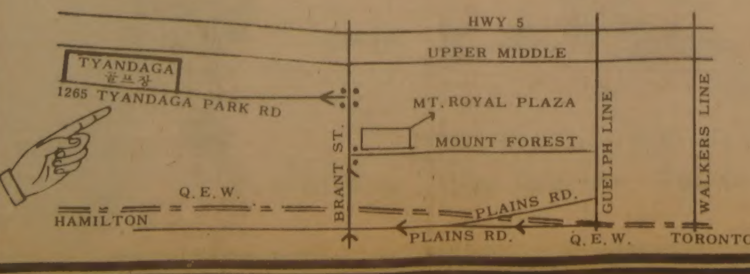
일 시 : 1982년 7월10일(토) 낮12시
장 소 : DOWNSVIEW DELLS BLACK CREEK
※모든 음식은 협회제공.
연락처 : 한 만 수 ☎ : 244—5824
서 정 길 ☎ : 630—3095



한인태권도협회 회장 서 정 길

제4 회 동우회친선골프대회

참가자격 : 동우회 회원
장 소 : TYANDAGA MINICIPAL GOLF COUSE
PRO SHOP (634—9588)
일 시 : 1982년7월24일 10시30분
참 가 비 : $30
상 품 : GROSS 1,2,3,등
NET A조 1,2,3,등
NET B조 1,2,3,4,5,등
LONGEST DRIVE, NEAREST, HONEST, 기타부상
연 락 처 : 고광남(284—8807), 배기덕(270—5574),
함태호(791—2276), 차인규(639—0773



建國34年에 15代20명 (署理 포함)

대통령中心制를 채택한 나라에서 國務總理는 흔히 內閣의 中樞 또는 內閣의 꽃으로 불린다.

이는 국무총리職이 막중한 國政을 대통령을 대리하여 지휘 감독 시행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는 48년建國이래 지금까지 한때 폐지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헌법과 정부組織法을 통해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第2人者로 규정하고있다.

국회의 同意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보좌하고 대통령의 命을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하는 권한을 갖고있다. 총리는 또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任命을 提請하고 解任을 건의할수있으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命을 받아 각 中央행정기관의 長을 지휘,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長의 命令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수 있도록돼있다.

이처럼 法과 제도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意中을 적절하게 헤아려 行政各部를 지휘, 통솔하고 對국회 對국민 관계에서도 보다 그 職位를 적극 활용할수있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위축되어 왔다.

즉 制憲때 채택된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무총리는 안정된 정치와 함께 강력한 民主行政을 추진하기위한 것이었으나 초기부터 최고 통치권자의 계산과 體制및 정치적 상황등으로 그 기능이 變形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제도보다 人物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만큼 總理들 인사의 경우 行政총리를 벗어나 이따금 활동폭을 넓히기도 했다.

建國이래 이번 金相浹총리서리까지 34년동안 국무총리는 署理와 5·16후 軍政기간중의 內閣首班까지합쳐 15代에 모두23명으로 평균在任기간은 1년1개월꼴.

最長壽는 9代丁一權씨로 6년7개월을 在任했고 最短재임으로는 1개월을 署理로지낸 李允榮씨.

그밖의 長壽級으로는 金鍾泌(4년6개월) 崔圭夏씨 (4년)등이고 短命으로는 張都暎(2개월) 許政(4개월) 張澤相(〃) 朴忠勳씨(〃)등이다.

第1 共和國

李承晩박사는 歷代 대통령중 국무총리를 철저히 對국회 對국민에대한 力學과 防彈및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

李允榮씨에 대한 국회인준실패로 총리가된 초대 李範奭씨는 韓民黨의 지지로 인준을 받았으나 韓民黨의 공세와 族靑에대한 李박사의 견제로 1년8개월만에下車. 뒤를 이은 申性模씨는 6·25를맞아 戰時內閣도 제대로 운영하지못한채 7개월만에 署理로 물러났고 2代인 張勉씨는 居昌사건·重石弗사건 原綿사건등으로 극도로 악화된 李박사와 국회간의 갈등으로 사임했다.

3代인 張澤相씨는 李박사의 再選을 위한 「拔萃改憲案」으로 政治파동을 빚고 험악분위기속에서 통과시켰으나 52년8월 史上첫 直選인 正·副統領선거에 官權개입과 소위 「古市進사건」 등으로 이용만 당하고 해임됐다.

4代 白斗鎭씨는 戰時인플레수습과 戰災복구를위해 통화개혁단행, 경제재건5개년계획을 단행추진했으나 自由黨內 族靑系 숙청여파로 1년8개월만에 물러났고 5代 卞榮泰씨는 5개월在任하다가 四捨五入改憲으로 總理制가 폐지됨에 따라 사임했다.

6代許政씨는 4·19후 過政首班으로 4개월동안 혼란수습과 改憲—5代總選등 새정부탄생까지의 어려운준비작업을 맡았다.

第2 共和國

內閣責任制로 바꾼만큼 4·19後 7·29總選으로 탄생한 張勉內閣은 종래의 內閣과 그성격이 달랐다.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元首役割만을 맡았기때문에 국무총리는 國政책임을 담당한 史上 가장강력한권한을 가졌지만 民主黨新舊派의 싸움과 꼬리를무는政治혼란을 수습하지못했고 결국 5·16쿠데타로 9개월만에短命했다.

第3 共和國

5·16후 2년7개월간 軍政기간중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는 內閣首班이 맡았다. 그러나 軍政연장기도등 정치적激變으로 첫首班인 張都暎씨는 2개월만에 사임했고 宋堯讚씨는 11개월, 金顯哲씨는 6개월간 在任했다.

5代 대통령및 6代국회의원선거로 출범한 제3공화국의 初代內閣은 崔斗善총리가 이끄는 팀이었다.

朴 대통령의 三顧草廬끝에 당시 대한적십자사였던 崔斗善씨가 총리직을 수락, 소위「防彈내각」이 성립됐고 세대교체, 사꾸라, 체질개선, 舊惡一掃등의 말이 많이 오고가던 그시절 崔斗善내각은 공개행정을 내세워 행정의民主化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暴國내각협상으로 組閣된 崔내각는 출범초부터 집권 共和黨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共和黨과 不和를 빚었고 드디어는 共和黨측이 집요하게 내세운 改閣주장에 그럴수 없다고 버티다『국가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키 위해』라는 짤막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5개월만에 崔총리는 초연히 물러났다.

한 다음으로 등장 丁一權총리내각은 6년7개월의 장수를 기록했다.

突擊內閣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출발한「丁내각은 韓·日국교정상화, 越南派兵, 고속도로등 각종건설, 3선改憲案처리등 굵직한 일을 해내며 60년대를 마감했다.

5·16軍政에서 民政으로 잇는 架橋의흔적을남기고 물러난 崔斗善내각에 이어 들어선 丁총리는 難局수습에 과감했다. 취임한달도 안돼 6·3사태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뒤이어 朴 대통령의 담화를 받아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정치학생과 교수를 축출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韓·日협정조인, 越南派兵등 굵직한 과제가 해결되고 政局이 점차 안정을 유지하자 후반에들어가서 내각은「突擊내각」에서「中和내각」으로 스타일을 바꾸는한편 이른바 70年代 고도경제성장의 기틀을마련하는 경제성장기반조성에 진력했다.

제3공화국의 3대내각을 이끈 白斗鎭총리는 출범당시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한 처방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으며 최초의「경제총리」로 등장했다.

戰亂중 3代총리로서 화폐개혁을 단행, 白씨는 이때 취임으로 처음으로 총리를 두번째在任하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白내각의 출범에 경제계는 경제시책의 제도를 修正,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朴 대통령의 『白총리는 6·25와 그직후의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수난을 극복한 경험을 보였고 업적을 남긴 분』이라는 설명처럼 기대가 컸다.

白총리는 취임후 첫기자회견에서 국공유사업을 점차로 民營化하고 公正去來法을 제정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그러나 白內閣은 경제적시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8代국회의원선거와 7代 대통령선거를치르는「선거관리內閣」의 과도역할만을 끝낸채 6개월만에 물러났다.

維新體制

白총리의 뒤를 이어 11代 金鍾泌씨가 내각을 맡았다.

『정치총리』라는 별명을 들으며 출범한 金鍾泌내각은 司法파동에 이어 廣州단지 난동사건을 겪는등 출범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나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駐越국군의 철수문제에도 진력하며 維新단행에도 앞장섰다. 金내각은 南北對話가 진행된 시기에 행정으로 이를 뒷받침 했고, 유럽등 각국을 순방하며 국제적 외교활동도 폈다. 73년엔 金大中사건을 겪으며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차례의 改閣을 통해 在任을 계속하기도 했다.

金씨는 75년12월 4년6개월의 「건강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밝히며 총리직을 떠났다.

金鍾泌씨에 이어 崔圭夏당시대통령외교안보담당特보좌관이 제12대내각의 바톤을 받게된다.

이른바 政治內閣에 이어「實務內閣」이 탄생된 것이다. 崔圭夏내각은 외무에 朴東鎭, 내무金致烈, 보사申鉉碻, 문공金聖鎭, 무임소申洞植등 각 장관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

崔圭夏내각은 維新體制기간중 경제시책과 庶政쇄신을 중점적으로 펴나갔고 드디어는 10·26이라는 시련을 맞았다.

79년10월27일 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출범시킨 崔圭夏총리는 統代회의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그해 12월21일 취임하면서 12대내각을 申鉉碻당시 부총리에게 넘겼다.

申내각은 혼란수습과 정치日程제시에 힘을 기울였고 80년4, 5월의 학원데모사태에 직면해 그 내렸다.

5·17직후 申鉉碻총리에 이어 내각을 이끌게 된 朴忠勳총리서리는 예정된 기간동안 총리서리직을 수행, 제5공화국이 들어서기 까지의 과도기를 넘겼다.

朴총리서리때는 金元基부총리, 李承潤재무, 吳鐸根법무, 李奎浩문교, 鄭宗澤농수산, 柳陽洙동자, 李光杓문공등 신임국무위원들과 함께 내각을 발족시켰다.

朴忠勳내각은 80년5월31일발족을 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현행헌법으로의 개헌작업을 맡아 이끌었다.

특히 在任기간동안 공직자정화작업을 옆에서 도왔고 과도기기간동안의 근로자생활안정에 힘을 쏟기도했다.

제5 共和國

제5공화국의 첫 내각을 이끈 南悳祐 국무총리가 들어 선것은 全斗煥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달인 80년9월2일.

경제내각의 성격을띤 南悳祐내각은 申秉鉉부총리, 盧信永외무, 徐廷和내무, 徐錫俊상공, 朴鳳煥동자, 金周南건설, 千命基보사, 高建교통, 金基錦체신, 李正五과기처, 李範錫통일원장관등 신임국무위원들으로 발족, 침체된 경제의회복과 경제구조의 재편성이라는 경제과제와 씨름하게된다.

南내각은 또 제5공화국 國政指標의 실현을 위해 정부 기구의 축소조정을 통한 간소한 정부 구현을 추진, 建國이래 최대의 정부기구축소를 단행했다.

南총리는 지난해 8월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하며 제5공화국의 국제적인 지지와 통일방안을 설명, 지지를 얻어 내기도 했다.

경제내각성격의 南내각은 물가안정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경제의 활성화에는 미진했다는 평과 함께 지난1월4일 實物경제를 안다는 社長출신 총리, 장관등 경제팀을 이루어 등장한 劉彰順총리내각에 바톤을 넘겼다.

實物경제팀을 이끌고 지난年初 전격적으로 등장한 劉내각은 몇달사이에 잇달아 발생한 거액어음사건, 宜寧사건, 美문화원 방화사건등의 책임을 물어 5개월20일만에 비교적 短命내각으로막을 내렸다.

劉彰順전총리는 金埈成부총리에게 實物경제팀의 발자취를 남겨 놓고 오랜만에 정치총리라는 별명을 듣는 金相浹총리서리에게 내각을 넘겼다.

【政治部 河長春기자】

內閣의 總理 얼굴

◇李範奭 ◇崔斗善 ◇張澤相 ◇崔圭夏 ◇卞榮泰 ◇申鉉碻 ◇許政 ◇南悳祐 ◇張勉 ◇劉彰順

◇歷代 內閣

代	총 리	재 임
初	李範奭	48·8~50·4
署理	申性模	50·4~50·11
2	張 勉	50·11~51·4
署	許 政	51·4~52·4
〃	李允榮	52·4~52·5
3	張澤相	52·5~52·9
4	白斗鎭	52·10 54·6
5	卞榮泰	54·6~54·11
6	許 政	60·4~60·8
7	張 勉	60·8~61·5
首班	張都暎	61·5~61·7
〃	宋堯讚	61·7~62·6
〃	金顯哲	62·6~63·12
8	崔斗善	63·12~64·5
9	丁一權	64·5~70·12
10	白斗鎭	70·12~71·6
11	金鍾泌	71·6~75·12
12	崔圭夏	75·12~79·12
13	申鉉碻	79·12~80·5
署	朴忠勳	80·5~80·9
14	南悳祐	80·9~82·1
15	劉彰順	82·1~82·6
署	金相浹	82·6~

평균在任 1년 1개월

最長壽丁一權·短命은 李允榮署한달

制度上 권한보다「人物」따라 機能變形

돌격·防彈·實物등 別稱이 時代相 반영

6·28『經濟革命』 이렇게 誕生했다

極秘추진 1週前부터 표면화

긴급소집 金通委員들 너무 큰폭에 당황

거세게 불던 緊縮論者 입김 간곳없고

銀行長도 "충격" 預金격정부터

○…6·28경제활성화대책을 경제혁명이라고 말하는사람이 많다. 그만큼 정책전환의 폭이 컸다.

6·28조치는 경제브레인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고위층의 리더십의 소산이라 할수있다. 지난 6월3일 국무회의에서도『국내경기회복이더던것을 선진국경기가 침체한탓으로만 돌리지말고 각부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수있는 방안을 찾아 마련하라』는지시가 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이같은 지시는 기존정책방향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예고였다.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경제정책브레인들은 국내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못한것은 해외경기가 침체한탓이며 따라서『세계경제가 회복되지않은 상태아래서 섣급한 경기부양책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제정책브레인이나 경제관료들은 입을모아 긴축견지를 주장하고 충격적인 조치는 더더구나 있을수없다고 입을 모았다. 불과 1주일전까지만해도 경제기획원·재무부등 긴축론자의 주장이 워낙 거셌기때문에 섣불리 활성화얘기를 끄집어냈다가는 핀잔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국무회의 지시가 있은후 10여일후인 지난12~13일께 金埈成부총리가 정책전환을 암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하여금 정책심포지엄을 갖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金부총리는 1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안정기반위의 활성화를 내세워 감을 잘못잡고있지않나하는 추측을 낳게했다. 金부총리는 지난24일 열린 경제장관협의회에서도 같은말을 되풀이 했다.

이처럼 경제기획원 주변에서 알듯말듯한 움직임이 이어지고있는동안 金在益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활성화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金수석은 개략적인 틀을잡아 23일께 이번대책의 조정산실인 경제기획원의 企劃局팀에게 보냈다. 기획국팀은 24일부터 철야작업, 토요일인 26일하오 대강을 마무리짓고 27일 하오 金부총리가 기자들에게 내용을 사전브리핑해주었다. 金부총리는 6·28조치때문에 6월25일출국예정인 유럽순방계획을 취소하고 金東輝상공부장관을 대신보낸것으로 알려졌다. 姜慶植재무부장관에게는 지난 24일하오6시 개각이발표된직후 金부총리가 불러 뀌뜀해준것으로 알려졌다.

○…6·28조치의 세부계획을 다듬은 企劃局팀은 이번조치의 과감성과 정책전환의 폭에대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긴축정책론자들로 구성된 기획원의 브레인들이 확실한 감을 잡은것은 24일 구체적인 작업지시가떨어지면서부터였다.

재무부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4~5일전까지만해도 금리의 추가인하나 법인세의 대폭인하문제를 거론했다가는 않은자리에서 면박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몇몇간부와 교과서지식이 전부인 젊은엘리트들은 철석같았다.

재무부는 토요일상오까지만해로 후속조치에 관심이집중되어있었다. 姜장관은 토요일하오 이례적으로 국장회의를 주재하고 몇몇간부들에게 귀뜀해준것으로 알려졌다. 며칠전 발표한 稅制改革案에서도 法人稅최고세율을 36%로 발표할정도.

○…일요일 저녁 긴급 소집돼 나온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은 금리인하폭이 예상밖으로 큰데 대해 상당히 놀라는 표정들. 뒤이어 열린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도충격을 받은듯 얼굴표정이 굳어 있었다. 금리의 대폭적인하가 은행저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은행수지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며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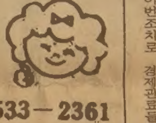
금통위 소집은 하루전인26일상오에 결정이돼 이날하오늦게 각위원들에게 통보됐으며 韓銀관계직원들은 27일일찍부터 출근, 준비에 부산했다.

이날열린 金通委에는 姜慶植재무부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나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는데 회의장 분위기는 지나치게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부작용이 생기지않을까 우려하는사람들로 다소 무거운 편이었다.

○…경제관료의 생리란 묘한것이다. 4~5일전까지만해도 긴축정책에 이의를제기하면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이 6·28조치가나오자 이를 합리화시키느라 부산했다. 그래도 비교적 정직한사람이한다는 얘기가『공무원이란 주어진명령을 수행하는것 아닙니까』하고 반문한 정도.

이번조치로 경제관료들은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아 정책을 도출해내는 체질이 다져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과거 경제정책에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았을때는 우왕좌왕하던 경제관료들이 이번조치가 발표된후에는 다시 일사불란해진 느낌. 주어진 지시를 이행하는데는 유능하지만 창의력은 모자란다는점을 암시. 경제관료들이 대국을 보는 안목이 모자라기때문에 6·28조치와 같은 큰흐름을 예견하지못하고 뒤좇고 있다고보는 견해도있다.

【經濟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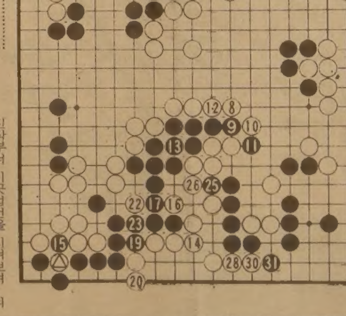


533—2361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8譜 88~108 (각5시간·덤5집반)

白(名 人) 曺 薰 鉉〈1勝〉
黑(挑戰者) 徐 奉 洙〈1敗〉



白88까지된데서 형세가 역전되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엄청난차이가 생긴것은 아니다. 조금전까지 좌하귀에서 삐어나온 白일단과 위쪽白이 미생마인채 분리되어 서로 공배를 두면서 연결해야되었는데 이제는 중앙에 망외의대세력이 형성되어 역으로 黑대마를 공격할처지로서 승리의 가능성이 저절로 커진것이다.

白、可恐할 攻勢

진작부터 이곳접전을 지켜보며 위기를 주고받던 검토실의 고단자들은 黑의 난조에 개탄을 마지않다가 白94, 96에 이르러『역시!』하며 名人의날렵한 수법에 감탄또감탄. 黑의 응전여하에 관심을 쏟게되었다.

앞서 黑89에 20분, 91에 11분을 소비한도전자는 95, 97로 지체없이 저항했지만 이것역시 고작 白두세점을 잡았을뿐, 白으로하여금 78, 100을 선수로두게한 결과, 아래쪽白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제자리 삶을 하게만들어주어 실리면에서도 득실의차가 엄청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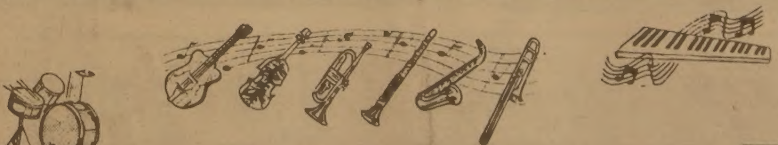
【一凡】

한국일보 詩壇

어느 六月의 記憶

李相淑

어느 六月의 記憶은
돌이 트지않은 땅일수록
심지를 밝히는 올빼미 눈。
이승의 바람 같지 않은
음침하고 눅눅한 바람이
하늘을 덮고 땅을 쓸었다
그 날
무릇 生存의 밑뿌리 흔들어
죽음과 삶의 사잇길을
죽도록 죽살이하다
슬픈 기억을 오지랖에 싸고
되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무수한 생명들이 있었다。
한 世代가 지난 지금
山과 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으나
六月이 오며는 속스리는 더 하다。
무슨 체증인들
잘도 쓸어 삭여 주신
할머니의 손은 약손인데두
어느 六月에 생긴
가슴의 또아리는 풀 수가 없구나。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 2일 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 기적소리만
망향·향수 · 무정한 여인 등 20여곡

거 구 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 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후1시 ~새벽1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 1618

入院한 精神이상青年이 물어
新生兒 발가락 3개 切斷

烏山기독병원 "치료책 임진다"우물우물
뒤늦게 傷處확인한家族들 경찰에 告發

경기 華城郡 烏山邑 오산기독병원(원장 배성원·46)에서 이병원 신생아실 보온기안에 놓여있던 李誠順씨(23·여·경기華城郡東灘面松里555)의 생후 11시간30분된 장남 朴智敏군이 지난5월1일 상오6시께 이병원에 입원한 24세가량의 정신이상인 청년에게 오른쪽엄지·곤지·중지발가락을 물려 각각 2~5㎜가량 잘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병원 간호원 金모양(19)에 따르면 이날 신생아실 맞은편 간호원실에서 당직근무중 아기가 몹시울어 달려가보니 보온기안에 있던 朴군이 유리칸막이를 사이에둔 중환자실침대에 누워 오른쪽발에서 피를 흘린채 울고 있었고 옆에는 전날 농약중독으로 입원한 24세가량의 청년이 서더란것。

이 병원원장 배씨는 이같은 사실을 30분후인 이날 상오11시30분께 朴군의 할머니 鄭甄愛씨(46)에게 처음알리며 『미친놈이 애기를 물어 살이 조금 떨어져 나갔는데 지장은 없다。조금만 치료하면 나을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합의하는 아기 아빠 朴性浩씨(26·회사원)에게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아기가 다나을때까지 퇴원하지말라』고설명해 가족들이 대수롭지않은줄알고 아기의 상처를보지도 않았다는것。

모와 아기가 퇴원하자 병원측은 매일 앰뷸런스를 보내 10일후인 지난달 11일 산통원치료를 해왔는데 상처를 보지말라는 병원측 주의를 이상히 여긴 산모 李씨가 퇴원3일후인 지난달 14일 병원측의 만류를 뿌리치고 치료실에 들어가 상처를 확인했다。

水原 L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촬영결과 엄지발가락은 뼈마디 1개가, 검지발가락은 2개가, 중지발가락은 1개가 각각 절단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뒤 아기의 상처는 두번이나 재발, 주위가 곪아 엄지발가락의 경우 어른의 엄지손가락만큼 부어올랐다。

가족들이 병원측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병원측은 관리과장 金모씨(35)와 원무과장 李모씨(30)를 보내 『1백만원을 줄테니 고소하지말라』고 설득을 한후 소식이없어 다음날인 14일경기華城경찰서에 고소했다。

병원측은 『정신 이상자는 산모와 같은날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있다가 신생아를 문뒤 보호자로부터 정신이상자라는 사실을 들었다。미리알았으면 입원시키지 않았을것』이라고 해명하고 아기가 성장한뒤 노동에는 지장이없으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비용을 대겠다고 말하고있다。이에대해 白병원 權七秀정형외과 과장은 『사람에게 물려 뼈마디가 절단된것이 사실이라면 이아이가 커서 잘 적응이 될경우 보행에 큰지장은 없으나 뛸때나 오래동안 걸을때에는 다소 불편을 느낄것으로 생각된다』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치아에서 나온 독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개속에 묻힌 새벽의 山을본다

새벽에 산 사람들
通禁철폐 이후의 新風俗図 ①

深夜 등반

대낮人波 피한 夜行들
어느새 「밤山은 滿員」…事故우려도

통금이 없어진후 우리의 밤풍경도 많이 달라졌다。통금시절에는 상상도 할수없는 자유분위기가 생겨고 곳곳에서 다양성있는 세상살이 모습도 나타났다。그중 하나가 심야등반。요즘에는 여름철을맞아 밤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이 한층많아졌는데 주말이면 서울근교는 물론 전국각지의 유명산마다 심야등반객들이 줄을 서고있다。이처럼 밤산을 타는 사람들이 늘고있는것은 지난1월통금이 철폐된후 시간제약을받지않는데다 대낮의 붐비는인파와 더위를 피하고 호젓한산행을 즐길수 있기때문。

◇밤늦게 산에 오르는 심야등반인구가 늘어나고 있다。이들은 번잡한 대낮을 피해 랜턴하나로 길을밝히며 칠흑의 산을 오르는 색다른 묘미를 즐긴다。(26일밤12시 北漢山에서)

게다가 밤에만 느낄수있는 산행과야영、이른새벽의 안개、달빛아래서의 암벽타기등의 낭만이 낮등산과는 달라 밤등산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것이다。

심야등반이 전에도 없었던 것은아니나 일부해외원정을 위한 특수훈련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통금해제후에는 모든 산악동호인들이 다투어나서고있다。이때문에 토요일하오만되면 貞陵、道峰등 서울근교 산의 입구는 물론 강원 雉岳山、雪嶽山등지에도 심야등반객들이 줄을 잇고있다。

토요일인 26일 하오10시道詵寺입구。밤산을 찾는 산사람들이 속속 들이닥친다。여기서 시작된 배낭과 손전등(랜턴)의 행렬은 해발7백m인 야영지까지 이어지고있다。시간이 지날수록 심야등반행렬은 더욱 두터워지고밤12시경이면 피크를 이룬다。

등산로의 길목에 위치한 牛耳산장은 잠시 쉬어가는 심야등반인들로 떠들썩하다。여기서 장비를 재점검하고 샘물로 목을 축인 이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본격적인 등반에 오르게 된다。

12년전부터 牛耳산장을 지켜온 주인 李逸求씨(58)에 의하면 평일에도 수십명이 심야등반을 오르지만 지난1월이후 토요일하오만되면 새벽2시까지 등반대열이 그치지 않는다는것。26일밤과 27일새벽2시까지 牛耳산장에 기록된 팀만도 월계수산악회등 60여개팀 4백여명에 달했다。이들이 「깔딱고개」와 「비둘기샘」주변등 야영지에 도착하면 새벽2시~3시 사이。일부는 이곳에서 야영을 하고 일부는 밤바위를 탄다。

한달에 2번은 심야등반을 한다는 李斗榮씨(28·회사원)는 암흑속에서 1.5볼트전지4개로 날을 밝힌 헤드랜턴을 달고 암벽을 타는 쾌감은 말로 설명할수 없단다。직장동료7명과 함께 야영에 나선 李銀姬양(24)은 『토요일오후에 볼일을 다보고 밤늦게라도 떠날수 있어 자주 심야등반에 참가한다』며 『낮에 오르는 것보다 쉽고 야영한뒤 안개끼는 새벽의 산을 보는 맛이 그만』이라고 심야등반을 예찬했다。

道峰山도 마찬가지。등산인들의 연락처인 道峰洞554 천만불상회 주인 兪孝根씨(47)에 의하면 26일하오와 27일새벽사이 50여개팀 3백여명이 심야등반에 올랐다。새벽2시부터 萬丈峰엔 랜턴불빛이 어른거리고 새벽3시께는 각코스에서 반딧불이 춤추듯 장관을 이룬다。

등산경력10년인 월계수산악회소속 金封賢씨(27·한국산악회구조대)는 심야등반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산악인들사이엔 『밤산은 만원이다』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에서비교적 가까운 摩尼山、逍遙山、華岳山、明智山은 물론 장거리코스에 속하는 雉岳山、雪嶽山에서도 비슷하다。토요일하오6시55분에 출발하는 原州행 보통열차와 하오9시30분발 부산행중앙선특급는 10시30분발 江陵행특급열차、심야등반에 나선 산악인들로 붐빈다。

이들은 12시전후 原州에도착、시가지를 걸어 雉岳山을 오른다。지난주말 雪岳山을 찾은 심야등반인수도 설성산악회등 40여개팀 3백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산악인들은 붐을 이루고있는 심야 등반에 우려를 표하기도한다。사고위험이 높은데다 구조가 어렵다는것。

한국산악회 총무이사 曺益鉉씨(56)는 『등산은 해떨어지기전에 모두 끝내는게원칙이다』『밤바위를 타는드릴과 밤산의 매력때문에 심야등반에 나서는 사람이늘어나 그만큼 위험이 뒤따를수밖에없다』고 말했다。【方政俊기자】

尙州배영國校에 불
교실 3개태워

【尙州】28일상오1시30분께 경북尙州郡外西面鳳岡里136의1 배영국민학교(교장 장윤환55)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별관 목조교실 3개를 전소시켜 1천3백77만원의 재산피해(경찰추산)를 내고 4시간만에 꺼졌다。【聯】

"對話로 상호協力"
木浦약사·醫師會대표들 다짐

【木浦】의약분업문제를 놓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약국휴업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木浦시내약사회(회장 柳松烈)는 28일 의사회(회장 丁大斗)대표와만나 상호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시민보건향상을위해 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이날 상오 木浦시청회의실에서 范澤均시장 주선으로자리를같이한 두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본의 아니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대해 우선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것과 시민보건향상에 앞장설것등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木浦市醫藥協會회장단은 이날의 모임을 계기로 『제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은 운영합리화를 통해 보완토록한다』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교환했다。

아파트分讓 돌연 中斷
江陵 住公浦南아파트일부
"本社지시"…광고낸후 取消

【江陵】강원 江陵市 浦南洞507 주공浦南아파트(13평형)는 지난해9월 주택공사가 12억원을 투입、금년4월30일 1백10가구분을 준공하고 분양광고를내 서민들을 상대로 분양을 시작한뒤 갑자기 80가구분에 대해서는 본사지시에따라 분양을 할수 없다고 중단을 해버렸다。

주공 浦南동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江陵시공무원들에게 임대키위해 집단계약할지 모르니 1백10가구중 30가구만분양하고 나머지 80가구는 분양치말라』는 지시가 본사로부터 내려 왔다는것。

그런데 분양광고를보고 찾아온수요자들은 갑작스런 당국의 태도변화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서민에게 분양해준다고 광고해놓고 어느사이에 공무원 임대용 아파트로 둔갑했느냐』며 항의하기도했다。【聯】

허위로 書類꾸미고
勞賃4백만원 꿀꺽

【釜山】梁山경찰서는 26일 현대건설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축부 잡공반장 이영우씨(42·경남梁山郡長安面吉川里190) 같은반장 정성수씨(26) 등 2명을 업무상배임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해 6월6일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이미 퇴사한 김선호씨(35·梁山郡長安面孝岩里) 등 10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회사측으로부터 이들의 노임 3백74만1천8백86원을 받아내 가로챈 것을 비롯 지난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이동안 하루씩 결근한 50명분의 노임25만원을 받아내는등 모두 3백99만1천8백86원을 가로챈 혐의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언제나「異邦人」
前期리그 打擊1位 白仁天선수
"나의野球에 충실하는것이 目標"

늑대의 정을 먹고 자랐다고 사람이 늑대가 될수는 없다。日本프로에서 야구선수로서의 자양분을 섭취한 白仁天(40·사진)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국내야구관계자나 팬들은 그에게서 된장냄새、마늘냄새가 덜 난다고 불만이고 심지어는 왜(倭)간장냄새가 난다고까지 심한 투정도 한다。

日本서의 20년이 그에게 쾌적했던것도 아닌데 왠구설수일까。日本사람들은 꺼꾸로 그에게서 낯선 김치냄새가 난다고 머리를저었었다。

그는 그래서 거기서나 여기서나 異邦人처럼 돼있는지도 모른다。사람의 코는 손쉽게 냄새를 잊어버리지만 사람의 머리는 지나칠만큼 고정된 관념에 집착한다。

『日本프로의 퇴물(退物)이란 말도 들었읍니다。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돌아와 할일이 많다고 생각한거지요』

白仁天은 자신의 프로야구 20년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모국의 프로야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적지않은 숫자의 선수들이 오로지 白仁天의 야구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인기없는팀 MBC·靑龍 입단을 희망하기도했다。

『내땅에서 야구선수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갈내자』

모국땅을 다시 밟은 白仁天의 소망이다。지난12일 大田에서 맞은 2천게임출장에 프로야구로 반생(半生)을 살아온 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27일로 白仁天은 생애통산 2천5게임에 출장、6천6백98타수、1천8백79안타、타율 2할8푼1리를 기록。국내프로야구서는 36게임 출장、1백19타수、48안타、타율 4할3리로 타격1위를 마크했다。

시즌개막이래 전반 한때 롯데의 金容哲에게 잠시 선두를 빼앗겼을뿐 나무배트 20년의 관록으로 거의 시즌내내 타격수위를 고수하고 있다。

『수위타자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나의 야구에 보다 충실하자는것이 지상의 목표지요。지금의 성적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 결과일뿐입니다』

미움을 살망정 白仁天은 타협을 싫어한다。20년의 외지생활、경쟁의 세계에서 길들여진 성품이다。확신에 찬 자신의 길만을 가겠다는것이 그의 고집이다。

不惑의 나이에 들어서도 그라운드를 달리는 감독(플레잉·매니저) 白仁天은 아직 자신만만하다。【方錫敏기자】

反政행동 是認
左傾등 學習내용 일부否認
釜山 美문화원放火 3회公判

◇법정으로 들어서고있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文富軾의 애인인 金恩淑피고인。

【釜山】釜山 美문화원 방화 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金鉉奬 文富軾 崔基植신부등 관련피고인 16명(구속15·불구속1)에 대한 3회공판이 28일상오10시 부산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14、21일의 1、2회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의 의식화학습에 관한 사실심리부터 시작、李美玉(20·여·高神大의예과2년) 崔寅純(20·여·釜山大약대3년) 金志禧(21·여·釜山女大3년) 朴貞美(22·여·釜山女大3년) 許珍洙(24·한국기장전국청년회부회장) 金華石(22·무직)피고인등 6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의 직접신문에 첫번째로 나온 李美玉피고인은 공소사실중 의식화학습(일시·장소·교육회수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좌경화·反美주장등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李피고인은 또한 文富軾·金恩淑과 함께 현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직접행동을 벌이기로 결의한후 지난3월2일부터 3월8일사이 불온벽보20여장、현수막3개、전단2백50장을 만들어 부산시내 각곳에 붙이거나 뿌린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시인했다。

李美玉피고인은 벽보등에 북괴찬양등의 글을 누가 썼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文富軾의 지시에따라 필체를 정자체로 바꾸어 자신이 직접썼으며 벽보를 부산대학병원 앞길등에 붙일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위해 손가락에 스카치테이프를 붙혔었다고 답변했다。

이피고인은 또 동족상잔등 21개항의 과격한 문구가 든 불온전단 2백50장은 모두 文富軾이 만들었으며 의식화학습중 실천행동등에 자극적인 표현이 많은것은 나이가 어려 표현이 강해진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하오3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文富軾피고인(23·총지휘)은 미문화원의 방화동기를 『한미간의 종속관계 탈피를위한 실천행동의 기폭제로 미문화원을 택했다』고 말하고 지난해12월19일 부산에온 金鉉奬으로부터 반미투쟁에 있어서의 미문화원 방화효과를 설명듣고 직접 실행할것을 권유받았으며 반미투쟁의 기폭제로 부산 미문화원방화를 결의하게 된게 아니냐는 검찰신문에 金을 만난것은 사실이나 그런말을 듣거나 한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文피고인은 미문화원 방화사건후 왜 하필이면 原州교육원으로 피신했느냐는 검찰신문에 대해 『池學淳주교와 崔基植신부가 있기때문에 자신들의 피신을 받아줄것같아 그곳을 택했다』고 말했다。【聯】

"學歷·나이·職業등 속인結婚
離婚사유된다"
大邱地法서 判決

【大邱】학력과 나이·직업등을 속이고 결혼했을경우는 이혼의 사유가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된다는 판결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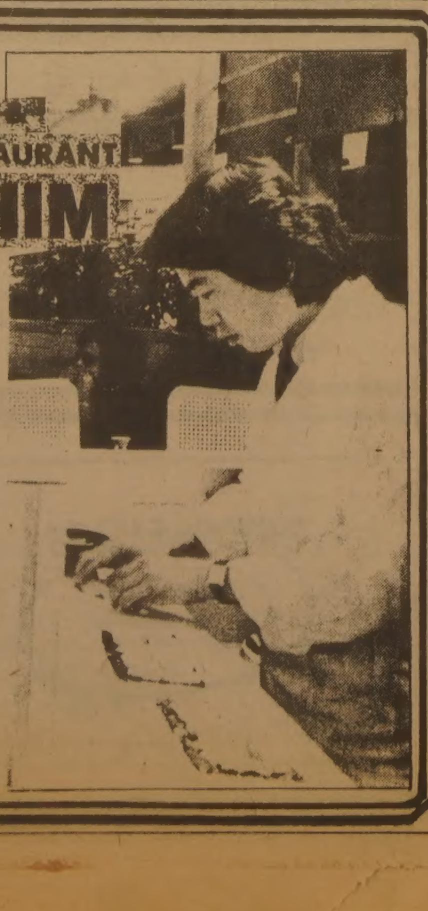
大邱지법 가정심판부(심판장 송진훈 부장판사)는 具모씨(25·大邱市西区內唐洞)가 남편千모씨(36·大邱市壽城區中洞)를 상대로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千씨는 具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토록 심판했다。

심판부는 『피청구인이 결혼의 중매사유인 나이와 학력 직업등을속이고한 결혼이므로 당연히 취소할수있으며 이로인해 상대방이 정상적인 혼인의 기회를 잃게된데대한 위자료를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심판이유를 밝혔다。

청구인 具씨는 지난해 5월중순 중매장이를 통해 千씨가 서울의 Y대학교를 졸업하고 51년생이며 미군부대에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으나 결혼후 千씨의 신원을 알아본결과 학력은 고졸이고 46년생이며 직장까지 거짓임이 밝혀져 결혼3개월만에 별거를 해오다 이혼소송을 냈었다。【聯】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본음식 전문점
호심
제일 큰 고층빌딩내 「호심」에서 한번 시식하십시오.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예: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시 3.75~9.95
기타

* 새로 쓰시바 신설
* FAST TAKE OUT SERVICE
* 단체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 단체연회 특별봉사
* 주문 환영합니다.

—저녁6시 이후에는 도로변 주차 가능.
—저렴한 파킹장: 평일 오후6시이후 Flat $1.50, 토요일 Flat $1.50

주류판매 개시
NOW FULLY 술LICENCED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엽니다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P.O. BOX 329 (100 King st. at Bay) ☎: 368—0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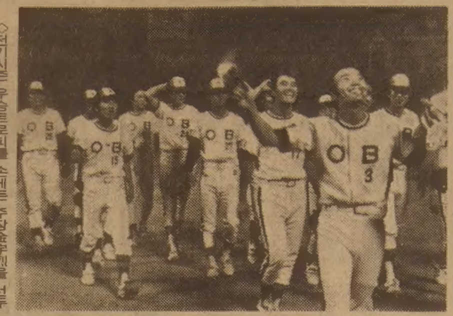
驚異의 18勝 朴哲淳투수

프로野球 前期리그 끝나 OB팀 첫優勝

百18게임서 홈런 百70

有料관중 77만 入場수입 11억6천만원

2位 三星·3位 MBC



◇전기시즌 우승트로피를 손에든 주장金宇烈을 선두로 OB베어스 선수들이 서울운동장그라운드를 일주하고왔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가운데 출범했던 프로야구 전기시즌이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백18게임을 치르는 동안 프로야구는 유료관중 77만여명을 동원, 11억6천4백여만원의 입장수입을 기록했다.

관중 동원은 성공 적이었다. 게임당 유료관중6천5백명이상. 첫선을 보인 프로야구에대한 팬들의 호기심이나 어린이야구회원들의 호응이 큰요인이었다.

82년시즌 33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삼고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린이회원들의 입장으로 관중수에서는 호황이었으나 실질수입에서는 계획에 30%나 미달된다고 분석하고있다.

장래의 고객확보책으로 실시된 어린이회원제도는 지나친 열기로 사회적문제를 일으켜 놓기도했다. 야간경기실시에따라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정상적인 어린이생활의 리듬이 깨어졌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부관중들의 난동에 가까운 관전태도였다. 빈발하는 투병사태와 그라운드난입으로 경기는 중단되고 선수들은 공포분위기에 위축되어 제 기량을 펴기가 어렵게되었다.

3개월에 걸친 전기시즌서 OB베어스는 朴哲淳등 안정된 마운드와 金宇烈·尹東均·申慶植이 중심을 이룬 타선의 활기로 단독선두를 질주, 첫시즌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朴哲淳은 18승2패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최다승투수자리를 지키고있다. MBC의 감독겸 지명타자 白仁天은 4할3리로 최고타율을 마크. 金宇烈(OB)은 11개로 홈런수위를 달리고있으나 金奉淵(해태·10개)金用熙(롯데·8개)등이 후기시즌서 추월할 기세를 보이고있다.

이번 전기리그 1백18개 게임서 총1백70개의 홈런이 기록되었다. 프로야구는 선수, 특히 투수진의 부족에다 무리한 경기일정과 15회연장제채택으로 선수보호에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있다. 【方錫岬기자】

타격 白仁天 <4할3리> 홈런 金宇烈 <11개> 타점 金城漢 <39개>

◇전기시즌팀성적

팀	승	패	타수	안타	홈런	득점	실점	타율	실책	도루	삼진	방어율
①OB	29	11	1,392	393	34	217	163	·282	57	55	118	3·21
②三星	26	13	1,308	357	28	214	127	·273	42	71	152	2·65
③MBC	20	18	1,292	357	29	202	189	·276	61	58	138	3·84
④해태	20	20	1,324	329	39	185	195	·248	52	90	153	3·85
⑤롯데	13	27	1,304	324	21	177	188	·248	58	43	154	3·63
⑥三美	10	29	1,334	343	19	167	300	·257	64	49	184	6·61

◇홈런5걸

선수	홈런
①金宇烈(O)	11
②金奉淵(해)	10
③金城漢(해)	9
④白仁天(M)	8
④金準桓(해)	8
④金用熙(롯)	8

◇타점5걸

선수	타점
①金城漢(해)	39
②李鍾道(M)	30
②申慶植(O)	30
②金用熙(롯)	30
⑤金宇烈(O)	29
⑤白仁天(M)	29

◇타격5걸

선수	출장	타수	안타	타율
①白仁天(M)	36	119	48	·403
②李鍾道(M)	37	145	54	·372
②尹東均(O)	39	145	54	·372
④金奉淵(해)	35	122	45	·369
⑤金容哲(롯)	35	118	42	·356

◇多勝투수5걸

선수	승	패	구원	출장	회수	자책	방어율
①朴哲淳(O)	18	2	3	24	167	37	1·99
②權永浩(星)	9	3	1	19	104	25	2·16
③金城漢(해)	9	5	1	24	96	28	2·65
④成洛秀(星)	6	0	1	14	67	11	1·48
⑤黃圭奉(星)	6	7	6	21	102	39	3·44

◇도루5걸

선수	도루
①趙興雲(美)	29
②金一權(해)	26
③車榮華(해)	21
④許奎沃(星)	16
④張泰洙(星)	16

한편프로야구 전기시즌 최종일인 27일 MBC靑龍은 서울운동장에서 三美슈퍼스타즈를 9─0, 5─4로 연파, 20승18패로 3위를 고수했다. 이미 2위를 확보한 三星라이온즈는 大邱에서 홈런2발로 롯데를 2─1로 제압, 26승13패를 마크했다. 해태 타이거즈는 大田서도 OB베어스를 5─1로 완파, 종반 3연승으로 20승20패를 기록했다.

전기시즌 1백20게임중 남은 MBC─三美, MBC─三星등 2게임은 후기시즌 예비일로 넘겨졌다.

◇27일전적

◆대전
해태 000 010 040─5
000 100 000─1

◆대구
롯데 000 001 000─1
삼성 000 000 20×─2
▲홈런=鄭學守(6회·롯데) 朴貞煥(7회)金漢根(7회·이상삼성)

◆서울
삼미 000 000 000─0
MBC 021 104 01×─9
삼미 100 000 021─4
MBC 030 001 10×─5

프로야구 주요기록

▲1이닝최다득점=三美9득점(6월5일 MBC대전) ▲1팀 최다득점=三美20득점(6월12일 三美대전) ▲1게임최다득점=롯데─三美26득점(5월5일) ▲1팀1이닝최다안타=三星9안타(6월12일三美대전) ▲1게임1팀최다안타=三星27안타(6월12일三美대전) ▲1게임 최다 안타=38안타(4월25일 OB21─三美17) ▲1게임1팀최다타점=三星19타점(6월12일三美대전) ▲1게임 최다타점=25타점(5월5일 三美15 롯데10) ▲1게임 최다 홈런=6개(5월9일 해태─MBC) ▲1팀최다홈런=해태4개(5월30일 三美대전) ▲만루홈런=李鍾道(MBC 3월27일 三星대전) 咸學守(三星4월8일롯데대전) ▲1게임최소투구수=朴哲淳90개(OB 6월6일 해태대전) ▲1게임최단경기시간=1시간10분(4월10일 해태─OB) ▲1게임최장경기시간=4시간24분(4월25일 三美─OB) ▲1게임최다도루=12도루(4월18일 해태7─OB5) ▲1게임1팀최다실책=MBC 7개(4월5일 해태대전) ▲최초사이클히트=吳大錫(三星 6월12일 三美대전) ▲최다 연승 투수=朴哲淳(OB 18연승) ▲최다 연속 안타=金用熙(롯데 18게임연속안타)

朴基哲 1회 RSC勝

亞洲아마복싱 權彩吾·申昌錫·李鉉柱등 4強진출

제10회 아시아 아마복싱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가 27일 잠실체육관에서 속행, 플라이급·페더급·라이트미들급 준준결승 8게임이 벌어져 4강권 진출자를 가려냈다. 이날 경기에서 플라이급의 權彩吾와 페더급의 朴基哲이 승리, 한국에서는 전날 승리한 申昌錫(밴텀)·李鉉柱(라이트)등 4명이 4강전에 진출했다.

준비소홀 參加國줄어…1게임이겨도 銅

한국의 가장 확실한 金메달후보인 朴基哲은 이날 빼어난 스피드와 다양한 공격으로 라타·크리샨(싱가포르)을 세차례 다운시킨끝에 1회2분24초만에 RSC승, 日本의 신지·히구찌와 30일 준결승전을 벌이게 됐다.

또한 플라이급에 출전한 權彩吾는 인도네시아의 수기아토와 치열한 타격전끝에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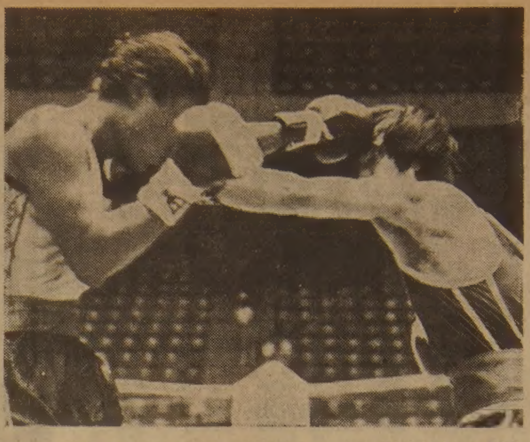
한편 플라이급의 아말다스(인도)도 홍콩의 참고·페이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2회 RSC승, 준결승에 올랐으며 페더급의 신지·히구찌(日本)도 라나(네팔)에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메달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서는 출전선수들이 대폭줄어 대부분 1게임만 이기면 동메달을 확보할 수있고 웰터, 미들, 라이트헤비, 슈퍼헤비급등 4체급은 각각 출전선수가 4명밖에 안돼 출전만하면 메달을 따게되었다.

◇제2일 전적

▲플라이급 준준결승
아말다스(인도) 2회RSC 참고페이(홍콩)
하다께(일본) 판정 오스만(말聯)
權彩吾(한국) 판정 수기아토(인도)
클린찬(태국) 판정 칸(파키스탄)

▲동 페더급
히구찌(일본) 판정 라나(네팔)
朴基哲(한국) 1회RSC 크리샨(싱가포르)
자비에르(인도) 3회1분50초 실격 타리오(파키스탄)



◇메더급 1차전서 한국의 朴基哲(右)이 크리샨(싱가포르)의 턱에 왼쪽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고 있다. 朴은 1회RSC승을 거두었다.

한국, 加에大敗 존즈컵 男子농구

【臺北27日AP=聯】제6회존즈컵국제남자농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남자대표팀은 26일 속행된 A조예선 마지막경기에서 캐나다에 86─52로 졌으나 예선전적 2승1패를 기록, 8팀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28일부터 벌어지는 결승리그 진출팀으로는 한국을 비롯 美國·캐나다·콜롬비아·프랑스·뉴질랜드·스웨덴·자유중국A팀등 8개팀이 확정됐다.

南仁圭, 濠洲국제마라톤 優勝

3개국 6백명참가 2시간17분5초로

◇南仁圭

濠洲서 전지훈련중인 南仁圭(진로)는 27일 시드니에서 열린 제44회국제마라톤대회서 2시간17분15초로 우승했다고 28일 륙상경기연맹에 알려왔다.

이대회에는 서울국제마라톤우승자인 濠洲의 로리·위티를비롯 3개국서 6백4명이 출전, 南仁圭는 강호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거두었다.

南仁圭는 이날 레이스6㎞지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도 역주, 자신의 최고기록 2시간19분49초를 2분34초 앞당겼다.

한국선수가 국제마라톤대회서 우승한것은 69년12월홍콩마라톤서 金次煥이 우승을 차지한 이래 처음이다.

서울國際남자籠球 창설

7월8일부터, 8국9개팀 참가

대한 농구협회 李東燦회장은 농구 사상 처음으로「서울국제 초청 남자농구대회」를 오는 7월8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서울올림픽을 대비, 남자농구 발전을위해 열리는 이번대회는 한국 2개팀, 自由中國, 필리핀, 印度, 말레이지아, 美國선발팀, 스웨덴 하게비클럽, 뉴질랜드등 8개국 9개팀이 출전한다.

뉴질랜드, 自由中國, 말레이지아, 印度는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며 필리핀은 美國프로 농구선수들을 스카우트한 용병팀으로 작년 존즈컵 배농구 우승팀이며 스웨덴의 하게비클럽은 작년 존즈배서 3위를 마크한 강호.

대회는 9개팀을 3개조로 나누어 예선리그를벌여 각조 상위2개팀이 결승리그로 패권을 가리고, 예선 탈락팀은 하위리그를 갖는다.

대한 농구협회는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회성과를보아 여자팀도 초청, 남녀 국제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83년부터는 대통령컵을 수여, 대회권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년 3관왕이된 장사 洪顯旭.

洪顯旭 3冠王

전국씨름대회 우승

洪顯旭(26·현대중공업)이 제2회시장기쟁탈 전국씨름대회 장사부에서 7전전승으로 우승, 금년 신춘씨름과 대통령기대회에 이어 3관왕을 차지했다.

이대회 2위는 李俊熙(27·부산공동어시장), 3위는 金光植(충남대)이 차지했다.

談合에 운「불쌍한 알제리」

西獨메스콤, 對墺戰 "씻지못할해독"

월드컵通信

◆…談合說로 큰 충격을 일으켰던 서독─오스트리아戰은 서독 신문·방송등 매스컴으로부터도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은 승부조작의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알제리측의 양팀실격요구를 기각했다.

여론조사 "91%가 勝負조작"

"26명선수 4萬관중에 사기"

FIFA선 확증없다 規制못해

서독─오스트리아戰후서독매스미디어는 일제히「치욕」「망신」등의 표제로 양국의 1─0승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본의 스포츠 정보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양팀의 경기내용이 조작된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으며 68%는 서독─오스트리아 경기가 축구에「씻지못할 해독」을 끼쳤다고 말했다.

서독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는「불쌍한 알제리」란 표제를 달고 서독이 알제리에 2─1로 졌을때보다 더 우울하다고 평했다.

엘·코메르치오紙는 4만명의 관중이 26명의 서독, 오스트리아 시민에 사기당했다고 흥분했다. 평론가들은 이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강경론자까지 있었다.

또 윔니쉐·룬트 샤우紙는 서독선수들이 2차리그 진출 보너스로 1인당 1백만달러씩을 받게 되는데 이돈이 월드컵경기와 축구의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을 보상한다면 한푼도 못받게 될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FIFA대변인 쿠르트씨는『알제리의 항의는 기각됐으며 두팀의 추방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FIFA가 각팀의 경기 방식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축구 경기는 룰에따라 진행되는것이고 또 심판이 있다. 따라서 외부의 작용으로 그결과를 바꾼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구선수2명 不正入學확인

體育部, 光州松源女高에 강력조치

속보=光州 松源女高배구팀 부정선수 사건을 조사중인 체육부는 松源女高가 지난80년 崔美玉·朴京姬등 두선수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에대해 강력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체육부는 사건과 관련, 지난23일 감사관계자 2명을 光州로 파견, 진상을 조사했으며 28일에는 대한배구협회에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체육부관계자는『전남도교위의 경우, 松源女高와 全南배구협회의 공신력을 믿고, 이들이 올린 자료를 토대로 체육특기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와 전남배구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부는 앞으로 부정입학사태를 근절하기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세울계획이다.

남자1천5백m서 尹忠九 2位

韓中친선陸上대회

한국의 尹忠九(제일제당)는 27일 대만에서 열린 韓·中·친선육상대회 남자1천5백m서 3분50초7의 호기록으로 2위를차지했다고 선수단이 28일 알려왔다.

남자4백m서張哲(한체대)은 48초94로 우승했고, 朴京德(경희대)도 5천m서 14분46초3으로 1위를차지했다.

해글러 負傷

練習中갈비부러져

【브록톤(美매사추세츠州)27日AP=聯】프로복싱WBA·WBC 통합미들급 챔피언 마빈·해글러는 연습도중 갈비뼈가 부러져 7월15일로 예정된 타이틀방어전을 연기하게됐다고 프로모터 봅·애럼씨가 발표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47>

웅달 ㉗ ─『왜 웃니?』

일환이가 벌써 화를 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열두시만되면 어떻게 별안간없어질수 있을까 궁금했었어』

그녀가 위로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다 우리처럼 없어지는것 아냐』

그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다.

『오빠 화 났어?』

『그럼 화가 안나니? 네이런데로 데려 왔는데』

『여기가 어때서?』

오목이는 방을 새삼스럽게 휘둘러보면서 시침을 뗐다. 그가 방문 눈을 감으면서 벽에 기댔다. 방바닥은 울긋불긋한 비닐장판이었다. 꽃무늬가 얼룩지면서 번지더니 다시 새빨간 사과알로 뭉쳐 이리저리 굴러다니기시작했다. 그녀는 그 방이 낯설지 않은 까닭을 비로소 알수 있었다. 그 방은 인재 하숙방과 너무도 닮았었다.

『할수 없었어 아직 나는 내방 하나없거던. 가게방에서 숙직을 하는데 둘이서 살이잖아. 네가 싫다면 지금이라도 난 그리로 갈께』

『날 여기 혼자 놔두구?』

오목이가 그의 소매를 잡으며 겁에 질린 소리를냈다.

『아냐, 안그럴께. 계집애 이런데서 혼자 재우다니말도 안돼』

오목이는 결혼길로 한쪽구석에 개켜놓은 이부자리를바라봤다. 그녀는 그분홍색 타프타 이불의 차갑고 눅눅한 감촉을 생생하게 예감하고진저리를 쳤다. 아직도 벽에기댄채인 일환이는 부피가 벽으로 찾아든양 혈면없이 무력해보였다.

『나때문에 오빠 곤란해져서 어떡해』

오목이는 자신을 무슨 허드레 물건처럼 그에게 떠맡기듯이 말했다.

『왜 하필 혼자한테 가 있을게 뭐냐? 네가 혼자하고만 있지않았어도 넘 진작 집으로 돌려보냈을거야. 이러긴 싫었어. 정말이야』

『혼자를 나쁘게 말하지마. 오빠가 아직도 목신인걸 알아다준 것도 혼자였어. 오빠하고 나하고 잘될거라고. 세상엔 오빠만한 남자도 흔치않다고 말해준것도 혼자였고…』

『흥, 제까짓게 나에 대해 뭘 안다구. 나 있는데도를 타서 찾느라고 혼 났다며?』

『혼자 같은 애를 통해 알아낼수 있는 건 오빠의 여자관계면 충분해.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있어하는것밖에는 천분가가 될수 없거들랑』

극도의 피로로 종이장처럼 벽에 밀착됐던 일환이의 눈에서 서서히 열망이 타올랐다.

『넌 순진하게스리 정말그걸 믿고 있었구나? 고아가 고아를 면하는 방법은 고아끼리 합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는 나의 개수작을』

나는 순진하지않아. 그렇지만 난 그걸믿겠어. 구석바에 밀을게 없는 걸 어떡해? 그녀는 대답대신 고개만 갸더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방 한칸도 없다니까』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안간힘으로 그가 팔을 내두르며 신음했다.

『나한테 방을 얻을 돈은 있어. 혼자한테 공밥 먹는다고 구박맞으면서도 안내놓고 지킨 돈이야』

그가 기댔던 벽에서 떨어져서 그녀에게로 다가오면서 별안간 부피를 회복하고 우람해졌다.

『그 걸레같은 계집애가 감히 너를 구박하다니, 가없어라』

그가 오목이를 파랗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듬어 안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537-0432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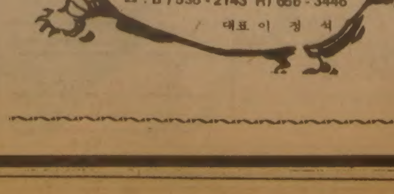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연중무휴

○ 회의실 마련
○ 각종파티 환영
○ 저렴한 음식가격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나옥녀 ☎: 531-0277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425-5656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藥局「休業강행」철회

서울·釜山·全南北 문열기로

執行部 갈팡질팡 전국 混亂만빚어

處方·調劑등「약사법의거」삭제요구

2종보험시범실시구에서의 「의약임의분업」에 반대, 26일상오 서울, 木浦, 光州, 釜山등지에서 지역적으로 벌여졌던 「약국휴업」은 이날하오6시께 서울시약사회 소속 분회장17명이 최종결의로 휴업취소를 결의함으로써 일단 모두 끝나고 전국약국들이 정상개업상태로 돌아갔다.

부산지역은 이날상오 전체 약국의 25%정도가 휴업했으나 하오4시께 모두 문을 열었고 90%이상 휴업했던 木浦 光州등 전남지역약사회도 이날 하오2시께 「서울지역에서 휴업에 가세함으로써 약사들의 의사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휴업을 끝내겠다」는 뜻을 대한약사회에 통고하고 약국문을 다시 열었다.

한편 휴업이 전반적으로 번졌던 서울지역약사회 분회장 17명은 이날하오4시께 약사회관에서 회의를갖고 대한약사회의 휴업보류방침을 받아들여 이날하오6시부터 약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분회장들은 이날회의에서 보사부의「처방및 조제에관한지침」중 문제가 되어있는 「약사법에의거」란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사가없는 병·의원은 외래환자의 약제비를 조합에 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할것등을 당국에 요구키로했다.

서울시내 약국 5천6백13개소는 이날하오4시현재 4백82개소만이 문을열고있었다.

이에앞서 대한약사회 회장단은 25일하오7시 金正禮보사부장관과의 협의에서▲휴업결의를 7월1일까지 보류하고 ▲그동안에 약사회와 의학협회가 쌍방협의, 보사부가 받아들일수있는 수습방안을 제시한다는내용의 협의확인서를 작성, 제출했었다.

한편 金正禮보사부장관은 26일상오 약국휴업에대비, 약사법19조와 22조의 「조제의무」및「약사윤리」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전국시도에 지시하는한편 대한약사회장앞으로보낸 「약사윤리확립에관한 지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왜곡하여 다른약사들에게 일제휴업을 유도하는 회원은 약사윤리위반으로 조치할수 있도록 그룹태를보고하라」고 지시했다.

藥局의 무기한休業強行경우 集會·示威관한法律적용검토

한편 서울시경은 26일 서울시내약국들이 무기한 휴업에들어가는경우 서울시약사회장및 각구단위지부장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여부 (동법3조)를 검토할 방침이다.

黃藥協會長사퇴

한편 黃源性대한약사회회장은 25일하오 회장직을 사퇴했다.

三清洞公館 金總理 금주初에 이사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금주초 惠化洞私邸에서 三清洞총리공관으로 이사할 예정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劉彰順前총리는 離任式을 가진 25일하오 三清洞공관에서 龍山區厚岩洞自宅으로 이사를했다.

夏穀수매·旱害대책협의 내일 農水産委 소집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는 26일상오 총무회담을열고 夏穀收買價와 旱害대책등 農政문제를 다루기위해 국회 農水産委를 28일 하오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林鍾基民韓黨총무는 각종현안문제를 다루기위해 지난번에 요청한 국회 재무, 건설, 내무, 법사, 상공, 경과위원회외에도 현재 紛糾가 일고있는 醫藥分業문제와 관련, 保社委를 추가, 모두 7개 常委의 소집을 주장했다.

반면 李東鎭국민당총무는 이중 재무, 건설위를 제외한 4~5개常委개최에 동조했는데 李鍾贊民正黨총무는 28일께 총무회담을 다시 열고 이문제를 검토하자고하여 결론을 얻지 못했다.

財務次官 金興起씨 建設次官 李寬永씨 專賣廳長 李揆成씨

정부는 26일 재무차관에 金興起전매청장을 임명하고, 전매청장에 李揆成재무부제1차관보를 승진 발령했다. 또 건설부차관에 李寬永건설부기획관리실장을 승진, 발령했다.

◇金興起차관 ◇李寬永차관 ◇李揆成청장

◇金興起재무차관略歷 ▲강원原州출신·50세 ▲서울大정치학과졸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국장·외자관리국장·조사통계국장 ▲국방부차관보 ▲전매청장

◇李寬永건설차관 ▲충북淸原출신·48세 ▲陸士卒(13期) ▲서울시기획관장·교육원장·건설부국토계획국장 ▲건설공무원교육원장 ▲전북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부감사관·기획관리실장

◇李揆成전매청장 ▲충남錦山출신·43세 ▲서울大경제과卒 ▲高試행정과2부합격 ▲재무부금융제도심의관 ▲대통령비서실비서관 ▲재무부국제금융국장 ▲〃제1차관보

社會漫評

醫藥國 三國誌…

헤이그 美國務 전격辭任

外交정책不和로 後任에 슐츠前財務 임명

◇레이건, 슐츠와 함께 조지·슐츠 신임美國務長官(左)의 모습。이사진은 지난81년2월10일 한모임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있는 모습을 찍은것이다. 【워싱턴26日UPI電送=聯合】

◇씁쓸한 退陣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美國의 외교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기때문에 국무장관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電送=聯合】

【워싱턴26日=李文熙특파원】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외교정책을 둘러싼 백악관측과의 불화로 25일 전격사임하고 그후임에 닉슨행정부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조지·슐츠(61) 벡텔그룹회장이 임명됐다. 레이건美대통령은 이날 백악관공보실에서 사전 예고없이 마련한 짤막한 TV성명을통해 헤이그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헤이그의 사임이유에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았으며 기자들의어떤 질문에도 답변하기를 거부한채 침통한 표정으로공보실을떠났다.

한편 사임한 헤이그장관은 레이건대통령의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美외교정책이 레이건행정부출범때 합의했던 목적의 일관성·명확성·확고성이라는 당초목표로부터 벗어나고있는게 최근수개월동안에 명백해졌다』고 레이건행정부의 외교노선을 신랄히 비판한뒤『이같은 상황아래서 내가할일은 대통령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는길밖에 없었다』고 말해 자신의사임이 외교정책을둘러싼 마찰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재임 18개월만에 사임한 헤이그는 조지·부시부통령, 진·커크패트릭駐유엔대사, 와인버거 국방장관, 윌리엄·클라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등과도 심각한 의견충돌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6월초순의 레이건 유럽순방기간중 헤이그는 유럽국가들의 對蘇차관제공중단을 보다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한 클라크보좌관과 수차례에 걸쳐 격앙된 舌戰을 벌여 레이건외교수뇌부의 분열상을 드러낸바 있다.

또 그는 포클랜드전쟁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영국지지입장을 표명, 커크패트릭 유엔美대사와 논쟁을 벌였다. 헤이그는 고수한 親이스라엘입장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규탄을 주장한 와인버거 장관과 대립하기도 했다.

헤이그는 지난18일 자신이 유엔군축특별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을 비운사이에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보좌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베리아가스관 부설공사에 미국장비사용금지조치를 취하자 크게 당황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업무로 런던을 방문도중 자신의 국무장관임명소식을 들은 슐츠씨는『美 밖이나 기분나쁘지는 않다』고 담담한 소감을 밝힌뒤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슐츠씨가 국무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기위해서는 상원의 인준절차가 남아있다. 美의사당 대변인은 상원외교위원회가 오는7월12일 휴회가 끝난후 가능한한 조속히 슐츠씨의 국무장관임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發表 全文

【워싱턴25日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의 헤이그국무장관 사임발표전문은 다음과같다.

『먼저 간략한발표를 하겠읍니다. 질문은 받지않겠읍니다. 기자회견은 내주로 예정하고있읍니다. 내가지금 발표하려는 것은 40년이상 우리 모두가 존경해마지않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나라를위해 성실히 봉사해온 행정부의 동료한사람에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임을하고 정부를 떠납니다. 무척 유감스런일이지만 나는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읍니다. 그의 후임에 조지·슐츠씨를 임명합니다. 나는 그조지는 국무장관직을 수락했읍니다. 발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李外務, 어제向美

"美의 對韓정책·友好관계 영향없다"

李範錫외무장관은 오는29일 워싱턴에서개최되는 韓美외상회담에 참석하기위해 26일하오 KAL편으로 出國했다.

李장관은 訪美기간중 스토셀 美국무장관대리(副長官)와 회담을 갖는외에 부시副統領, 와인버거국방장관, 케이시 CIA국장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및 의회지도자들과만나 현안 문제에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가질 예정이다.

李장관은 당초 헤이그前국무장관과 외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헤이그장관의 돌연한 사임으로 장관직을대리하고 있는 스토셀 副장관과 ▲최근의 北傀동향및 한반도정세 검토▲한국의 평화적 통일노력▲韓·美·日 경제협력문제▲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공동 보조문제등을 협의한다.

신임 슐츠국무장관은 美上院의 비준이 끝날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수 없기때문에 공식회담이 아닌 비공식접촉을갖고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李장관의 訪美에는 외무부에서 孔魯明차관보, 金奭圭美洲국장, 文東錫장관비서관이 수행했다.

헤이그前장관은 이電文에서 『귀하의 미국방문은 매우 유익한것이 될것이며 兩國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하는데 이바지할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본인의 後任者가 東北亞의 안전보장유지를위해 공동의이익추구를 앞으로도 지속할것이며 또한 미국의 安保와독립을위한 지원은 계속 확고할것임을 확언할수있다』고 밝혔다.

한편외무부는 헤이그美국무장관이突然사임하고後任에 슐츠씨가 임명된데 대해 미국의 對韓정책과, 양국간의 기본우호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분석했다.

26일 金奭圭외무부美洲국장은 『헤이그 前국무장관은 지난해 韓美頂上회담등 양국의 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높이 평가하고 『슐츠장관의 취임으로 양국의 既存관계에 어떤 영향은 없을것이며 韓美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커美大使와 귀엣말 李範錫 외무장관(左)이 26일하오 出國에앞서 공항에서 전송나온 워커美대사와 환담하고 있다.

地平線

전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인구는 3억6천만쯤으로 짐작되고 있다. 중국어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10억이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 3억6천만은 영국·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등 세계에서도 가장 잘사는 나라들을 포함하고있다. 영어로 쓴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하면 돈벼락을 맞게 마련이다. 가난한 우리 3천8백만의 한글인구와 댈게 아니다.

▼「낯선자를 사랑하지말라」「굶주는자가 먼저 죽는다」같은 소설들 2억부나 판 미국의 해롤드·로빈스란 70객의 영감님 소설가는 지금까지 1억1천3백만달러나 벌었다고한다. 우리 돈으로 8백38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다. 올해 여든살의 바버러·카틀랜드란 영국 할머니는 1억5천만부나 되는 소설책을 팔았다고한다.

▼이런 소설가들은 대부분 싸구려 대중소설작가다. 그러나 시장이 큰만큼 역시 영어문화권은 세계의 문화를 앞질러가는 기수다. 예를들어 노벨상수상자 3백63명중에서 미국이 1백54명으로 단연앞서고 다음이 영국의 79명이다. 이 두나라를 합쳐서 64%가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그다음이 독일60명, 프랑스42명, 스웨덴23명, 소련15명의 차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살아남자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와 변화에 대한 정보에 뒤지지 말아야된다. 한해에 7천가지나 되는 외국책을 번역출판하는 소련은 그런 뜻에서 세계최대의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할수있다. 다음이 6천6백가지의 서독,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의차례다. 그러나 일본만해도 서독의 38%도 미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일본책 수입이 늘어나고있다(한국일보23일자 7면보도). 10년동안에 2백30%나 늘었고, 작년엔 60억원어치의 일본책을 수입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72년만해도 수입해온 외국책의 구성비가 일본책과 서양책이 맞먹었는데, 작년엔 일본책이 서양책의 2배를넘었다고 한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는 보도다.

▼한국은 말하자면 일본의「번역문화」를받아들이는 소매시장이라고 할수있다. 이런현상은 한글세대가 사회의 주축이되면서 청산되리라고 기대했던 과거의 유산이다. 그러나 기대와는반대방향으로 가고있는게 분명하다. 언제쯤 세계각국의 문화를「직수입」하겠다는것일까? 우리의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촉구치 않을수 없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대회
82년7월3일(토) 상오9시
토론토 코로네이션 파크
주최 한국일보社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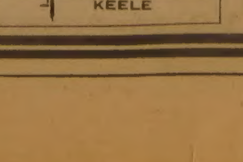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June 28 - July 10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75 per box
Buy a Case (12)		2.65 per box
Y & S Twizzlers	24x40	6.39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Top	50x10	2.40
Sweet Tarts	48x10	3.16
Giant Tarts	36x10	2.37
Dare Peg Top Candy	12x1.39	9.80
Allen's Big Foot	100x.5	2.8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Taveners Tin Candy	1x1.95	1.19
Life Saver Bubble Yum (orange only)	18x30	3.09

7월1일(목) 도미니온데이 OPEN • 7월2일(금) CLOSE • 7월3일(토) CLOSE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CALEDONIA
KEELE
LAWRENCE

累積된 마찰…白堊館서 고립

——헤이그 電擊退陣의 배경

레바논事態·對蘇문제등 政策수행에 影響力잃어

【워싱턴 26日=李文熙특파원】 헤이그 미국무장관의 사임은 발표그대로 전격적인것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나 헤이그장관의 사표수리와 조지·슐츠후임장관의 임명을 짤막하게 발표했고 헤이그장관은 그2시간후 국무성강당에서 이임사에 해당하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헤이그는 이편지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종래의일관성·명확성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사임의 과정과 사임의 辭에서 그의 전격퇴진의 배경을 읽을수있다.

소위 헤이그 시절이라고 할수있는 지난18개월간 미국의 이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된 너무 많은 국제분규가 일어났다. 가까이는 레바논,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폴란드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제들이 미국의 정책방향에 영향을받을수있는 문제들이었다.

25일레이건각료로서는처음인 헤이그의사임은 행정부일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의 성격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있었지만 이번사임의 배경은 무엇보다 백악관및 다른 행정각료들과의 異見과 不和에있다고 봐야할것이며 그 가장큰예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에 대한 입장의 차이다.

헤이그는 흔히 정부내에서 친이스라엘로 통해 왔다. 행정부주변에서는 백악관이 점차 헤이그의 이같은 이스라엘 비호자세에 불만을갖고있었으며 최근 헤이그의 권고로 이뤄진것으로알려진 레이건 대통령의베긴이스라엘수상면담은 미국이 레바논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입장을 지지하는듯한 인상을준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무차별폭격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최고외교정책보좌역인 헤이그의 정책방향보다 윌리엄·클라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의견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크보좌관이나 와인버거장관은 늘 미국은 이스라엘이 침공을 중단하고 철군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로 헤이그는 최근 한정부내 특히 레이건 대통령주변에서 고립되는 입장으로 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레바논정책 결정과함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시베리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기술등의 제공 금지조치를 내리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의 반발을 이유로 헤이그는 반대입장을표시했으나 이문제또한 관철하지못하는 입장이 되면서 이번 고립화는 심화됐던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성소식통들은헤이그사임에는여러복합적인이유가 있을수있지만 이두가지문제, 레바논과 파이프라인문제에서 느낀 고립과무력감이 결국 사임을 결심하게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헤이그는 그의 거친 어조와 군장성이었다는 배경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정책수행에 있어 비교적 온건하고 현실상황과 여론, 우방국과의 이해와도 타협을 할줄아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그간 정책수행의 마디마디에서 백악관측이나 국방성측과 마찰을 일으켜왔던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사실로 관계자들은 결국 헤이그가 레이건 대통령의 주변을 싸고있는 캘리포니아사단에 끝까지 끼어들지는 못한것 같다고 보고있다.

그는 그의 능력과 국무장관이란 위치때문에 외교정책면에서는 그의 정책방향이 받아들여져왔지만 최근들어서는 헤이그의 영향력이 약화된 대신 클라크보좌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온것으로 모두들분석하고있다. 클라크보좌관은 백악관으로 오기전 헤이그의 국무성차관이었으며 초기에는 조화를 잘이뤄나가는듯 했다.

그러나 레이건의 오랜친구인 클라크가 차츰행정부내에서 헤이그의 반대편에 서있는 와인버거쪽으로 기울기시작했고 이때문에 근래에는 헤이그 자신도 클라크를「누를 수 없다」는 것을 감지, 여기에 정책수행에 영향력마저 잃자 사임을 결심하게 된것같다.

한편 헤이그의 사임후의 관심은 슐츠신임장관의 정책방향에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슐츠장관이 여하히 정책방향을 변화시켜 나갈것인가에 있으며 이관계자들은 슐츠장관도 헤이그와 같이 강력한 西유럽지향정책을 견지할 것이지만 중동정책에서 만은 커다란 차이를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벡텔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점과 벡텔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대한 건설공사를 하고있음을 지적하면서 중동분규에 있어서 아랍측의 고려에 신중할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문제와 관련, 미상원내의 친이스라엘의원들은 와인버거장관도 전에 벡텔에 있었던 점을 들어 앞으로 미국의 對중동정책과관련, 함축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통된견해는 슐츠장관의 임명으로 갑작스럽고 극적인 정책변화는기대할 수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무장관발탁직후 破顔의 레이건 대통령과 헤이그 (80년12월), 하지만 헤이그는 외교정책을 둘러싼 백악관측과의 알력때문에 끝내 사임하고 말았다.

아침에

豊饒로운「政治농사」를…

새 總理에 거는 國民의 期待크다

朴泰洵 〈작가〉

「월하대책에 만전을 기하자」라는 표어를 몇년전 시골 여행 중에서 본 기억이 있다. 월하대책? 달빛 아래에서 무슨 춤이라도 추자는 대책은 아닐테고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궁리를 거듭한 끝에 越夏對策, 즉 무사히 여름을 넘기자는 대책이 아닌가 추리를 해보게 되었다. 월동대책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을수 있지 않느냐 한다면 입을 다물수 밖에는 없다. 게다가 가뭄, 장마, 각종전염병 그리고 일종의 농민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농촌의 병충해와의 싸움등 그야말로 무사히 여름을 넘기자면 만반의준비를 갖추어야 하니 그 대책이 만만할 리 없겠지만, 그러함에도「월하대책」이란 말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지금 농촌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 야단이다.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 표현으로는 이제라도 비가 와주면 땅이 바짝 섬을 내었다가 목을 축이는것이 되어 땅심이 도리어 좋아져서 풍년을 이루게 되리라는 식으로 가뭄끝의 단비를 기다리는 德談으로 삼고있다. 雨順風調는 아직껏 농사의 근본이 되고있다. 치산치수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던 시절에는 이처럼 자연적 기후와 인간적 욕구사이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태평성대가 이루어질수 있었다. 「월하대책 만전」운운의 표어는 이러한 치산치수 이론의 현대적 표현이있을까?

지나간주일에는 일년중 낮이 가장 긴 夏至가 있었고 그리고 端午명절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짧은 봄에이어 무덥고 긴여름을 예고하는 이러한「기념일」들이 세인의 관심을 그닥 끈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의 도시 중심의 생활은 계절을 잊고 사는 것인지라 이러한 옛절기나 歲時가 직접적인 실감으로 와닿지 않는 증거이겠다. 그보다는 知性과 野性을 고루 갖춘것을 역설하였던 학자출신의 국무총리 出仕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수 없었던것 같다. 일국의 국무총리는 實務者가 아니라 經國濟世의 經綸家이어야 하리라는 서민들의 심정이 있기에 가뭄이 들고 있는 이때에 옛 치산치수의 정치인상을 이처럼 생각해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더우기 금년의「끔찍했던 봄」에 이어 찾아든 夏至절기의 여름인만큼 우리의「政治農事」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터이다. 물론 서민들은 정치에대해서는 잘모르고 있다. 도리어 정치가 서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알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요하는 대목마저 있는것이 아닌가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정치를 모르게 하는것이 잘하는 정치라는 요순 시대의 말도 있었을것이다. 물론 현대정치학 원론에는 어긋나는 말이라 하겠지만…

서민들이 생각하는「政治農事」는 물론 자연과 싸우는 주곡농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파쇠 농사 잘짓는것이 다른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더구나 전국민의 7할이상이 도시로 나와 살고 있는 오늘의 생활감각으로 따져보더라도 우리는 자연적 기후가 아닌 人工的 氣候속에서 살고있다. 이러한 人工的 氣候가 雨順風調일수 있도록 하는것, 그것이 곧 政治農事가 아닐까 느끼고있다.

『한 해 흉년의 뒤끝은 3년을 끌고 한번 난리의 뒤끝은 30년을 끈다』는 속담이있다고 한다. 6·25가 일어난지 벌써 30년을 넘기었고 제3공화국이 무너진 것도 3년이 가깝다. 後日의 역사가는 어찌 판단할지 모르지만 현싯점에서 파악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3공화국 또는 제4공화국의「政治農事」가 雨順風調의 順調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있지는 않다.

현대의 정치 농사가 경제를 氣候로 삼고 官僚를 농부로 삼아 民衆을 씨알로 여기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經濟―관료조직―국민의 3각관계가 順調를 이루고 있었던것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제3、또는 제4로표현되는 共和國 시절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氣候(經濟)는 학자들의 애용어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한쪽권에서는 돈의 홍수로 범람했고 다른 한쪽권에서는 돈의 가뭄으로 목이 탔다.

케인즈 경제학의 후계자라 하는 영국의 존·로빈슨 여사는「현대 경제학입문」이라는 책에서 제3세계 경제의 자본유입에 따른 성장이론이 부딪치는 한계를 설명하는 節의 제목을「술에 취한 다음날 아침」이라고 붙였다. 發展, 발전을 내세우며 확대를 일삼던「대향연」의 시대의 꿈에서 깨어나는 때가 곧「술에 취한 다음날 아침」이라는 경제학 서적에 걸맞지 않는 문학적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는듯하다. 속이 뒤틀리고 골치가 쑤시는 이런 상태가 지난봄에 있었던「염자의 전성시대」란는 유행어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참나적인 분노보다는 그런 현상 (홍수, 가뭄의 同時的발생) 이 일어나게 된 경제이론의 허구성을 근본적인 治山治水로 다스려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학자들은 朝鮮王朝 사회를 가리켜「兩班官僚 社會」라고 명명한다. 양반이 관료로 되어 그 양반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란) 정치를 폈던 봉건사회였다는 뜻인듯하다. 19세기에 그 사회는 자기 모순에의해 스스로 주저앉듯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제3공화국의 정치농사에 있어서 농부 (관료) 들은 정치인과 국민의 짝에 끼여져서 갈광질광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다. 또한 관료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말단 관료가 견디어야했던 職務와 생활 속에서의 重壓感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관료 조직의 그 조직에 있어서의 경직화는 바람직한 새시대의 정치 농사를 위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좋은 농부를 만나야 벼가 잘 자랄 것이 아닌가. 의령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제3공화국시절을 무조건 비판만하자는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살아온 역사라면 우리의 역사를 무조건부인할때 우리자신의 모습은 존재하지않게된다. 취할것은 취하고 버릴것은 과감히 버려야한다. 前共和國시대의 덤터기를 무엇때문에 떠맡아야 하는가. 학자출신의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苦言이다.

제3공화국시절에 가장 강조되었던 가치관은「능률」이란 것이었다. 능률, 능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나머지는 문화, 예술은「第二經濟」로 下手취가되기도 하였고, 創造力을 내세우고싶어하는 문화, 예술인들은 無能者 내지 능률시대에 적응못하는 귀찮은 존재로 멸시를받았다. 당연한 결과로서 이시절의「문화창달」은 눈흘겨운 것이었고 능률인들의 反文化性은 70년대에 新造된 용어인 非理의 世態를 야기시켰다.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더 늦기전에 우리 사회는 능률존중과 아울러 창조력 또한 존중되는 세상이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사를 空白으로 놓아둔 채 능률만을 건설하려고할때 그것이 인간을위한 능률이 아니라 능률을위해 인간의 가치가 묶여져버리는 비능률을 야기시킨것이 아닌가 恐懼스러운 것이다.

능률은 사회현상을 토대로 하여 사기가치를 발휘하지만 창조력은 문화현상을 통하여 그 업적을 쌓아가게된다。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을 일구기 위해 생존경쟁을벌이고 남한테 이기기위해 능률을 발휘해야하는 고단한 삶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모두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하는 국토인만큼, 이러한 것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부터 얻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며 능률 못지 않게 창조력이 중시되는 까닭이 아닌가 싶다.

농민들은 이여름 햇빛속에서 자연적 사회적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풍요로운 가을수확을 거두기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쌓여있기는하지만 신임국무총리께서는 풍요로운 政治農事의 수확을 거둘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소망을 이렇게 피력해본다.

經驗풍부한「經濟의 눈」

——美 새國務長官 조지·슐츠

國際금융大家…調整솜씨도

아이크후 4대통령이 重用

미국의 새국무장관조지·슐츠(61)는 외교보다는 국제금융의 大家이다. 그가 프린스턴대학에서 따낸 하위도 산업경제학박사. 슐츠는 50년대 아이젠하워대통령시절 행정부와 인연을 맺은뒤 케네디, 닉슨행정부때 각료직을 맡았지만 매번 경제부서가본령이었다.

닉슨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69년 노동부장관, 이듬해엔 신설된 행정관리예산국장을 맡았고 72년엔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그뒤 닉슨이 워터게이트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하기 직전 1년남짓 풍파많은시절에 백악관 보좌관을 지내면서 백악관과 내각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조정하는 솜씨를 보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전때 정책대안을 통해 적극 도왔던 슐츠는 정권인수반을 총지휘했다.

헤이그에 앞서 국무장관자리를 레이건은 슐츠더러 맡아달라고 청했다. 그때만해도 슐츠는 자기가 맡고있는 벡텔社회장직을 그만둘수가 없어서라고 사양이유를 밝혔었다.

벡텔이라면 세계 최대 다국적건설회사의 하나로 사우디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등 1백여개국에 진출해있고 미국내에서는 후버댐과 알래스카에서 본토를 잇는 송유관을 건설한 대기업체.

슐츠는 강력한「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로서 레이건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밀튼·프리드먼박사와 친교도 깊고 노선도 같이한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밖 12人의저명인사로 구성된 경제정책자문위의장으로서 지난번 베르사유 서방선진경상회담이 열리기전 대통령특사자격으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곧이어 회담이 열리자 그는 슈미트서독수상을 비롯, 참석한 우방수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西方경제가풀어야할 숙제의 妙方을 논의했다.

이같은 최근의활약은「앞서 닉슨 휘하에서 美蘇무역확대에이룩한업적에다비록 성과는 없었으나 중동순방을 통해 油價인하를모색했던 경력과 더해져서 슐츠에게는「外交도 낯익은분야」라는 評이 일각에서 나오게되었다.

이런 배경으로미루어 슐츠의 등장은 미국외교에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리라는예측을 낳는다. 벡텔같은 巨大 다국적기업의 총수로서 2년남짓 일하면서얻은 경륜은 미국의 實利를보다 냉정하게 관단해줄 소중한 또하나의 눈이될것이다.

슐츠를 수석장관으로 맞는 미국의 내각 그리고 국무성과 백악관관계는 헤이그시절보다 훨씬 손발이맞는 팀플레이를 보일것으로 예견된다. 그는 헤이그처럼 모나지않고 키신저처럼 大家임을 과시하지않는다.

헤이그와 不和를 자주빚었던 앨런전 대통령보좌관은 슐츠가 뛰어난 자질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는 상무·재무성·CIA등과 자주 협의를 갖는 국무장관이 될것이라고 평했다.

헤이그 退陣과 깊이 상관있는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앞서 같은 벡텔社 부사장으로 있을때부터 이미 호흡을 맞추어 두었다. 2차대전에 참전, 해병소령으로 예편한 그는 헬레나·오브라이언 여사와 결혼, 2남3녀를 두고있다. 【金炳武기자】

이스라엘、새休戰수락

【베이루트·예루살렘25日AP=聯合】이스라엘은 베이루트포격을 재개한지 4일만인 25일 레바논침공이래 최대의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과 서리아군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항의한 레바논내각의 사퇴발표가 있은지 수시간만인 이날 하오8시 (한국시간 26일새벽3시)를 기해 다시 레바논전투의 휴전을 수락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스라엘외무성은 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팔레스타인및 시리아군과의 새휴전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대변인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휴전수락은 이스라엘의 전쟁당사자들이 똑같이 휴전을 준수한다는것을 조건으로 한것이라고 단서를붙였다.

레바논전쟁의 평화적 타결을위해 중재외교를 벌이고있는 하비브특사도 이날 이스라엘의 발표에 앞서 레바논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야세르·아라파트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장에게 이사실을 전하도록 권유했다고 레바논국영방송이 보도했다.

伊근로자 總罷業

10년래 最大…全國마비

【로마25日 外信 AP=聯合】50여만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25일 로마시내 한복판에 모여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탈리아전역에서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는등 10여년만에 최대규모의 노동쟁의가 발생, 이탈리아전국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50여만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1천6백만 전체노동자들의 절반가량을 회원으로 갖고있는 이탈리아 3개노조가 정부의 긴축정책과 기업주들이 인플레율을 감안, 3개월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동적으로 인상키로 한 제도를 준수치 않고 있는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시간의 총파업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 아침일찍부터 로마시내의 피사 델 포폴로광장에 모여들기 시작, 정부의 고용정책실패와 기업주의 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美 콜럼비아號 카운트다운 再開

【케이프카내베랄 (미플로리다주) 25日 AP UPI=聯合】평화적인 우주탐험20여년만에 최초로 우주에서 극비의 군사실험을 하게될 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마지막 4차비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25일하오10시 (한국시간) 예정대로 재개돼 28일 0시 출발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메아리

청소년의 난폭성이 갈수록 심해져 사회의 두통거리가 된지 오래다。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법과 질서의 권위로도 그 위협수위를 막아내기 버차다.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한 병리현상의 하나다.

일본의 한 지방고교 교장이 얼마전 교내학생폭력으로 고민끝에 자살한 일이 일어났다。千葉縣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중심삼아 약1백명으로 조직된 비행그룹이 행패를 계속확대시켰다。우두머리격의 학생이 퇴학을 당하자 학교에 방화를하고 밤중엔 자동차를 몰고와 유리창을 산산히 부숴버리기도 했다.

자살한 교장은 폭력학생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고립과 갈등에 시달린 교장은「피곤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을 한것이다. 일본사회에 던진 충격은 컸다.

학생폭력을 방지할 秘策은 따로 없는것 같다. 당시 일본의 여론은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다. 교장이나 교사의 능력만으로 다룰수 없는 문제다. 부모와 지역사회、그리고 다른 학교 교사들까지 손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白書

25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백서는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청소년범죄가 전체범죄증가율을 앞지르고 강력화해 간다。특히 성범죄가 늘었다。연령층도 내려가 低齡化현상을 보이고 있다.

범죄의 동기는 대부분 우발적이라고한다。하찮은 일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른다。신문의 사회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사회의 얼굴이다。어제 조간에도 고교생 편싸움기사가 눈에 가시처럼 보도되었다。전율할 폭력사건이 너무 잦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집을 자주비우는 부모의 무관심과 TV프로탓으로 진단한다。우리나라에 소개된 스타스키와 허치、코작같은 프로가 폭력을 자극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범죄와 폭력은 성인사회의 投影이며 그 병리의 오염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광경이 과연 어떻게 비쳐졌을까…。청소년문제는 어른에게 책임이 많다。예방과 선도에 힘을 쏟으면 그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

海外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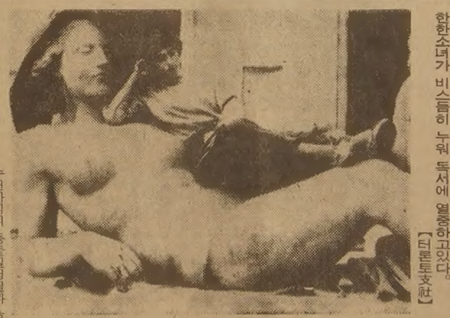
回春의秘藥 발견

★中共한의학자 實驗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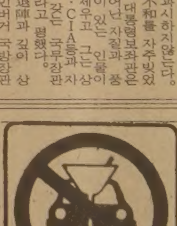
중공의 유명한 한의학자가 고대중국의 황제와 그가족들에게만 제공되었던 회춘의 비약조제법을 발견해 냈다。

杭州에서 한방업을하는 펭·젱·센이라는 한의학자는 고서를 정리하던중 明나라때의 이같은 조제법을 발견、수천마리의 동물실험결과 효능이 입증됐으며 몇몇 관리·배우·교수들도 환약으로된 이 약을 복용하고 좋은 효험을 보았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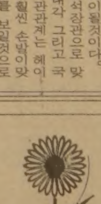
스태미너·정력·기억력등을 증진시킨다는 이 환약은 인삼을 주원료로해서 제조되는데 펭씨는 복용해보면 10년쯤은 젊어질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그러나 복용기간중 당근을 먹으면 효과가 줄어든다고 경고。【홍콩=UPI】



◇누드위의 讀書 벗은자와 안벗은자—파리의 한 누드조각위에 정장을 한한소녀가 비스듬히 누워 독서에 열중하고있다。【터론토支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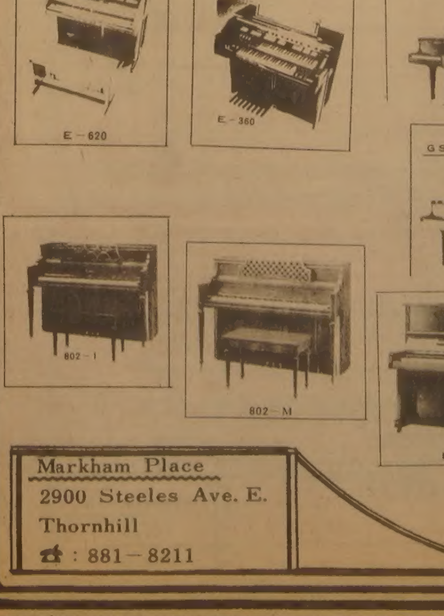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바이올린、전자올갠、기－타 (GUITAR)、훌룻、첼로、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6·25때 자진參戰 산화한 자랑스런 在美同胞

虐待받는 紀念碑

돌보는이 없이 26년…서울碌磻洞「徐煒廉 2세」

스토리

도심에서 멀지않은 서울恩平區應岩1洞85의 14 碌磻제1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화강암 돌비석하나가 잡초에싸인채 외로이 서있다. 『자기의 한국친구들을 위하여 사망한, 故미국해군대위 徐煒廉二世 戰死紀念碑』。비문으로 보아 徐煒廉재미교포 2세가 6·25전쟁때 해군대위로 참전, 전사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포성이 멎은지32년, 비석이 세워진지 26년이지나도록 누구하나 돌보는이 없다。지하에 잠든 그가말하는 진정한 「한국친구들」은 과연 누구일까?

徐대위의 미국이름은 「윌리엄·쇼」。그의 부친인 재미교포 徐煒廉1世는 일찌기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이된후 31세때 귀국, 平壤의 光成중고교와 延世大이사로 교육계에 공헌했을뿐아니라 서울, 大田, 平壤등지에서 선교활동도했다。

徐대위는 오하이오州 웨스턴대학을 졸업한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고있었을때 6·25가 발발하자 29세의 젊은나이로 미국해군대위로 한국전에 참전, 조국을 지킬것을 자원했다。

徐대위의 참전경위는 자세히 알려지지않았지만 6·25세대들중 징집을 기피하기위해 도망치거나 신검불합격을 노려 자해행위를한 사람들이 많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재미동포였다。

徐대위는 50년9월15일 仁川상륙작전에 참가, 9월18일 서울탈환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徐대위는 서울탈환 4일만인 9월22일 퇴각하는 북괴패잔병들을 추격하다 碌磻삼거리전투에서 조국을위해 최후를 마쳤다。

徐대위는 웨스턴대학을 졸업한후 미국인 로빈슨양과 결혼、슬하에 아들을하나 낳았는데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면 귀국、延世大에서 후진교육을위해 몸바칠 생각이었다는게 가족들의 말이었다。

徐대위의 안타까운 전사를 알게된 당시 白樂濬延大총장등 55명이 기금을내놔 전사기념비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용은씨)를 결성、碌磻삼거리에 기념비를 세운것은 지난56년9월22일。그러나도시계획에 밀려 지난72년 현재의 어린이놀이터로 옮겨졌다。

더구나 당시 건립위원들도 작고한 사람이많아 徐대위의 전공과 기념비의 내력조차자세히 전해지지않고있어 이래저래 안타까울 뿐이다。

비석이 어린이놀이터로 옮겨진후 전혀 관리가 안된것은 물론 놀러나온 개구장이들이 비석위에 올라가 돌멩이로 두드리고 마구 낙서하고 또 오물까지 버리고 있어 지저분하기 짝이없다。때문에 비석귀퉁이는 군데군데 흠집이 나있고 비문을 알아보지 못한곳도 4、5군데나된다。

기념비가 있는곳에서 불과 70~80m사이에 관할 碌磻洞 청이 자리하고 있지만 주무과장도 이 비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관이었고 한직원이 정리해놓은 자료라는것이 비문을 베껴 써놓은 서류한장이 고작이었다。

기념비가 세워진 바로 이웃집 崔모씨 (35)는 『과거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가끔 화분을 갖다 놓았으나 근래는 아무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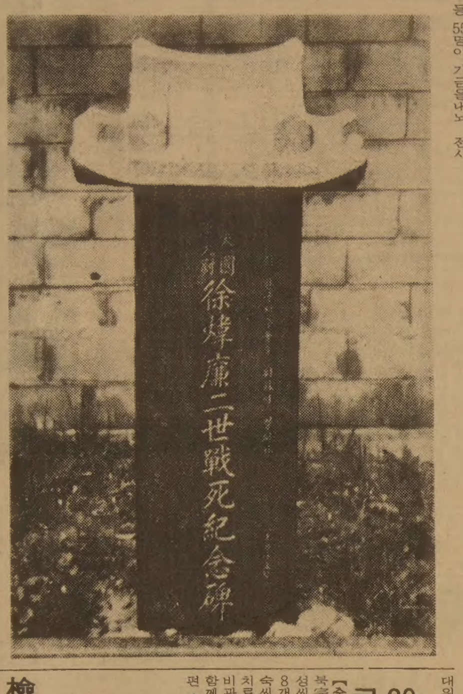
한편 徐대위의 미망인 로빈슨여사는 남편의 유지를 뒤따라 얼마전까지 延世大에서 사회사업을 하다가 쓸쓸히 미국으로 귀국해 버렸고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

뜻있는 이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한국전에서 숨진 재미교포2세란 흔치않은 徐대위의 넋을 너무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냐는 자책이다。

아무래도 「자기의 한국친구를 위하여 별세한」이란 비문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徐대위는 받는것같다。【趙明九기자】

碑文엔"한국친구위해" 놀이터에放置…破損도

未亡人도 社會사업하다 쓸쓸히 귀국



◇祖國의 친구는 어디에… 재미교포로 6·25때 참전, 서울을 탈환하고 碌磻전투에서 전사한 미해군대위의 전사기념비。

세女人 농락후 殺害…暗葬

中年 20여명 通情…금품갈취

40代구속

結婚 조르면 故鄕유인 手法

【釜山】 결혼을 빙자, 20여명의 중년여자들을 농락하고 이들중 3명을 차례로 유인, 살해한후 암매장한 엽기적인 살인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시경은 26일 全昌市(40·부산시釜山鎭區草邑洞143)를 大邱市中區達城洞 전부 金모씨 (38)집에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살인및 시체유기등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은 또범인 全의진술에 따라 경남密陽郡下南邑大司里뒷산 해발2백80m의 소나무숲속에서 全의 전처 尹英子씨 (32) 와 내연의 관계였던 南玉熙씨 (50·충남大田市大寺洞114) 諸泓成씨(48·釜山鎭區楊亭2洞145)등 2명의 시체를 발굴했다。

경찰에의하면 全은 지난80년8월 별거중이던 전처尹씨를 고향인 密陽으로 유인、목졸라 살해한뒤 암매장했고 그후 서울 大邱 大田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30、40대의중년여자들을 꾀 차례로 농락하고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금품까지 갈취해왔다는 것이다。

1차범행 범인 全은 지난80년8월 별거중이던 전처 尹씨가 5년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번돈 2백50만원을갖고 함께살자며 찾아오자 이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尹씨에게 『고향에있는 아버님의 묘소를 찾아가 그동안 내가저지른죄를 용서받고 같이살자』며 密陽으로 유인、목졸라죽이고 암매장했다。

◇諸泓成씨

◇尹英子씨

2차범행 全은 같은해 10월 부산시北區德浦洞 한효맨션 건축장에서 알게된 유부녀 諸泓成씨 (48) 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후 『남편과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2백만원을 뜯어냈다。

全은 諸씨가 자녀들때문에 결혼할수 없으니 빌려간돈 2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11월15일 하오2시께 諸씨를 고향으로 유인、살해한뒤 암매장했다。

3차범행 全은 지난해 3월 충남 대전에서 다방마담 尹모씨 (45) 를 알게돼 동거를 시작했는데 한달뒤쯤 西大田에서 간이식당을 경영하던 南玉熙씨 (50) 를 만나 함께 살자면서 정을 통한후 南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

이때부터 南씨가 동거를강요하자 全은 南씨를 살해하기로 결심、『고향의 어머니에게 결혼승낙을 받으러 가자』며 지난해 6월11일 密陽의 범행장소로 유인、같은 방법으로 살해 암장했다。

全은 이밖에도 지난해1월 경기도 仁川에서 다방마담 임모씨 (37) 와 1개월동안 동거하다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70만원을받아낸뒤 고향인 密陽郡下南邑소재S다방까지 유인해왔으나 임씨가 뒤늦게 눈치를채고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범행이실패했다。

경찰은 全이 살해한 여인들외에도 서울을비롯 강원、충남북、전남북등을 돌며 주로 30·40대의 중년여자들을 골라 결혼을 빙자、2~3개월씩 동거하며 결혼준비금조로 모두 3천여만원을 뜯어낸것으로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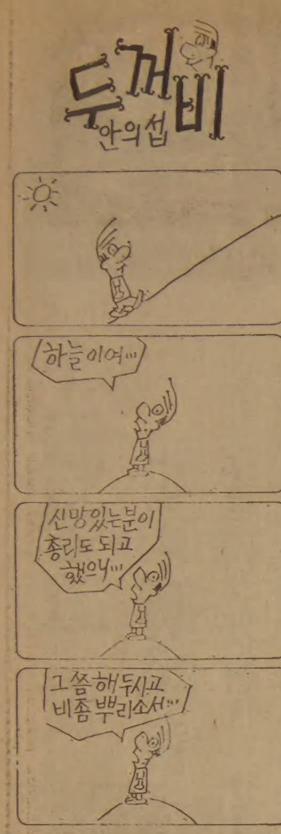
◇3명의 여인을 차례로 농락한후 살해、암매장한 살인범 全昌市。【부산=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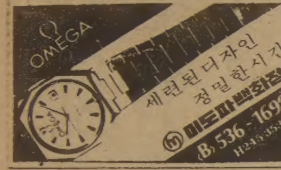
범인주변 범인의 고향은 경남密陽郡下南邑 守山里。이곳에서 중학교를 졸업、지난71년10월 고향에서 尹씨와 결혼 1남1녀를 낳았다。

유도 유단자인범인은 결혼후 守山里에서 체육관을차려 생활해오다가 운영이 잘안되자 지난75년 釜山으로 이사갔으나 직장을 구하지못하고 공사장인부·버스매표원등으로 생활을 해왔다。

키 1m72cm의 건장한 체구에 미남형인 범인은 2남1녀중 차남으로 홀어머니밑에서 자라나 성격이 비뚤어졌다。

한편 발굴된 시체들은 모두 뼈만 남았으나 尹씨는 빨간색모자 검정핸드백 흑색상의등이, 南씨는 검정하이힐 반지、諸씨는 빨간색 전자시계 신발등이 그대로나와가족들이 당장 확인할수있었다。【聯】





藥局문「열었다」「닫았다」

醫藥분업 분규에 市民만 골탕

약국문이 닫혔다、열렸다、다시 닫히는등 소동이 계속된하루였다。

26일 서울시내 대부분의 약국들은 상오중에는 일제히 문을 닫고 휴업에들어갔다가 하오한때 당국의 종용으로 문을 여는가 싶더니 다시 문을 닫는등 갈팡질팡이었고 이바람에 약국을 찾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었다。

서울시 집계에의하면 이날 상오10시현재 서울시내 5천6백13개 약국중 10·7%인 5백99개소만이 문을 열었을뿐 나머지 5천14개소가 휴업중인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오부터 관할 보건소와 파출소 직원들이 나와 문을 열것을 종용하자 문을 여는곳이 많았다。

이날 문닫은 약국들은『당국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 국민보건을위한 약국업무를 더이상 수행할수없어 폐문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내붙이고 있었다。

도매상과 대형약국들이 밀집돼있는 서울鍾路區 鍾路4·5街일대의 60여개 약국들도 26일을 기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채 이날하오 대부분이 문을 열었다。

鍾路區 明倫洞 3街1보성약국 약사 「眞姬씨 (36·여) 는『급한 환자들 때문에30여명의 주민들이 약국에서 20m떨어진 집까지 찾아와 약사로써 안타깝기 짝이없었다』며『당국은 의사만 일방적으로 두둔하지말고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약사들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것』을호소했다。

서울中區仁峴洞1의106공해약국은 이날상오까지 문을 열고있지않다가 보건소에서 나와 문을 열라고하자 잠시 문을 열었으나 직원들이 다른약국으로 간 사이 다시 문을 닫았다。

鍾路區寬勳洞·仁寺洞등지의 약국들은 이날상오 모두 문을열지 않았다가 낮12시께 분회지역반장으로부터『문을 열라』는 연락을받고 모두문을 열었는데 하오1시께 이지시가 잘못전달됐다는 말이 들리자 분회장과 인근약국에 사실을 확인하는등 약사회집행부와 분회간의 의견충돌을 그대로 나타냈다。

한편 지난23일 전국에서 맨처음 휴업을 시작했던 木浦시내 약국들은 시민들의 항의에 부닥쳐 점차 문을 여는 추세를 보이고있고 다른시·도의 약국들도 대부분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있다。

서울大병원 외래약국에는 이날 평소보다 3~4배가많은 1백여명이 몰려들어 문을 닫은 창구안에 서성거리고 있었고 또 銅雀區鷺梁津洞의 現代병원에는 이날 약만을사러온 시민들이 10여명이 있었으나 병원약국측이『의사처방전 없이는 약을줄수없다』고 하자 되돌아가기도했다。

大鐘賞 비리관련 15명 조사후歸家

檢察 수사종결

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大鐘賞수상을 둘러싼 금품수수설과 관련、영화인 협회이사장 卞張鎬、등 연기분과위원장 張東輝、우진필름 대표 鄭鎭宇、배우 南宮遠씨등 영화계인사 15명을 소환、조사했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영화제작자들로부터 금품을받아 일부를 불우원로 배우들에게 생활비조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협회비로 쓰는등 일부 부당한 처사도 드러나 이를 감독기관인 문공부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卞씨는 81년도 대종상 심사직후인 작년10월23일 동아흥행대표 崔相鶴씨로부터 8백만원、郭貞煥씨 (합동영화사대표) 로부터 3백만원등 모두 1천1백만원을 받아 원로 영화인 崔薰씨와 張東輝씨에게 생활비조로 2백만원씩을 주고 나머지 7백만원은 협회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張東輝씨는 작년10월21일 삼영필름대표 姜대진씨로부터 3백만원、배우 南宮遠씨로부터 50만원등 3백50만원을 받아 崔浦鉉、金信哉(도미중) 金一海씨등 불우한 원로배우들에게 생활비조로 각각 1백만원씩을 줬음이 확인됐다는것。

검찰은 卞씨와 張씨로부터 생활비보조를 받은 崔남현씨등 3명이 81년도 대종상 심사위원 31명의 명단에는 들어있었지만 심사당일인 작년10월22일에 투표권행사를 하지못했음이 확인돼 범죄구성요건 (배임수재) 미비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연행、하룻만인25일하오 모두귀가조치시켰다고 밝혔다。張東輝씨는 현재 삭월세 단칸방에서 살고있고 崔남현씨는 고혈압과중풍을 앓는등 불우한 생활을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代 임신부 큰딸과 自殺

【全州】 26일 상오10시께 전북完州郡華山面峙里69李대성씨 (28) 집 안방에서 임신8개월째인 李씨의부인 양연숙씨 (25) 가 쇠약해진몸의 치료를 받고도 낫지않는것을 비관、장녀 명진양 (2) 과 함께 음독、숨져있는것을 남편 李씨가발견 경찰에신고했다。

가정부인 變死體로

정신착란 집나간뒤

【堤川】 26일 새벽6시께 堤川市中央路2街 7통2반 20여평의 공터 쓰레기장에 도종욱씨 (30·堤川市義林洞6통2반) 의부인 강순종씨 (28) 가 입에 피를흘린채 숨져있는것을 길을가던 이종호씨 (29·堤川市中央路2街) 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강씨는 25일밤 9시께 갑자기집을나갔는데 평소 정신착란증세를나타내 자주 가출을 해왔다는것。【聯】

人蔘의 약효! 원비 ⓒ일양약품

"南北分斷 지속은 민족적인 손실만"

訪日 통일원장관

孫在植통일원장관은 26일 일본 오오사까 (大阪) 지역의 平統자문위원·民團간부등과 간담회를 가진자리에서『南北分斷의 지속은 민족적손실만 가져올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현지공관이 통일원에 보고해왔다。

孫장관은 또『分斷으로 南北이 서로대결하다보니 민족적力量의 소모가 크고 국제무대에서 얻을수있는 이익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南北韓이 再통합을 하기위해서는 대화와 交流를 통해 和合을 이룩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왕 사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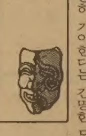
大入試 개선위원장 崔正薰교수

"미래의 入試는 大學재량에…"

『이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있을수 없읍니다。지극히 제한된 연구였으나 우리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년도 입시제도는 그 골간을 많이 바꾸지않은 것에 우선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83년도 大入전형방법의 산파역을 맡은 입시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崔正薰교수 (50·사진·延世大기획실장)。

그의 말을 빌면 아무리 잘된 입시제도라 할지라도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사회 풍토에서는 시시비비가 있게 마련이다。그것은 대학은 한정되어있는데 모두가 대학에 마땅히 가야한다는 간명한 모순에서 비롯된다。



또다른 원인도 지적한다。사회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위해 매스컴은 교육에대해 과민반응하고 독자는 자극받아 더욱 교육정보에 갈증을 느낀다。서로「꼬리 물기」식의 관심의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일응 합리성이 있어보인다。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 명문대학에서 뒷문입학을 시켜도 아무런 뒤탈이 없다。물론 그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도대체 그런일 따위엔 관심을 갖지않는다。획일적인 입시제도라는것이 없는탓도있다。

『미래의 대학입시는 각각 대학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학력고사 점수 몇점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것은 아무래도 적합치않읍니다』

살짝 학원사태쪽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최근들어 몇가지 문제는 있었읍니다만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고 있읍니다』

그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학생들은 급진적이고 어른들은 보수적」이라고했다。학생·어른 할것없이서로 마음을 놓을수있을때도 그리 멀지않다고도 했다。그럴때는「문교당국자」와 별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도한다。

동료교수나 선배들이 왕사꾸라라고 놀려댄다고 깔깔 웃는다。

그도 그럴것이 가르침에 전념해야할교수 직분에 넘칠정도로 직함이 많다。문교부정책자문회의 대학분과위원장、대학평가위원장、풀브라이트위원등등。

그러나 학교에서 맡고있는 대학원의 지각심리학과 교양과정의 심리학개론 강의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

이같은 엄청난 업무량을 탈없이 해내는것은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은 매사에대한 강한 신념때문이라는것이다。부친은 지난3월 작고한 전興士團이사장 崔熙松씨。

좀처럼 흐트러짐없는 그가 교육문제를 고민하듯 마해낼때『교육은 정말 어려운것』임을 느낀다。【李鍾九기자】

5行뉴스

◆和順폭약절도범 2명검거 【光州】 전남도경은 26일 和順郡同福面獨上里 농업용수로 개설공사장 폭약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이마을 徐正南씨 (21) 와 李南權씨 (23) 등 2명을검거。

◆대낮에춤춘主婦25명구류 【木浦】 전남 木浦경찰서는 26일 주택가에서 대낮에 춤을춘 가정주부등 23명의 남녀를 검거、5~10일간씩의 구류처분을 받게했다。【聯】

◆長項선특급列車-회증설 철도청은 7월1일부터 長項선열차운행시각을개정하고 특급열차1왕복을 증설했다。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최성조
●안내광고(CLASSIFIED):박경욱
533-2361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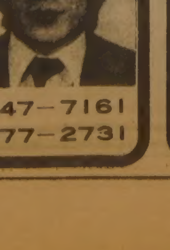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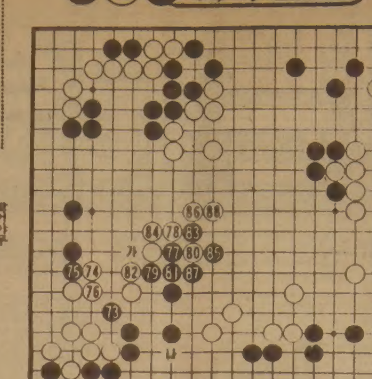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R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제13 71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7譜 73~88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 曺薫鉉(1勝)
黑(挑戦者) 徐奉洙(1敗)



黑73으로 공격의 방향을 잡고 바둑을 이상하게 만든 도전자는 본보에서도 모처럼의 찬스를 거듭 두차례나 잃게된다.

아직도 공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白대마를 黑77, 79로 괴롭힌데까지는 좋았다. 79로 80자리에 늘어두면 白도 84쪽을 이어서 편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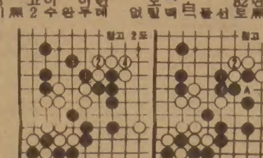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黑81이 첫번째 완착이다. 이수는 어쨌거나 참고1도의 黑1, 3으로 몰고나와 白4때 黑5로 노리개를 했어야 黑이 편한 바둑이었다. 수순중 白2로 「A」는 黑2로 되몰려서 더욱 불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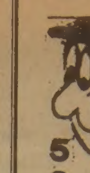
黑81, 白82의 승부수를 유발하여 문제가 까다롭게 되었다. 82는 간토

도전자 연속 失機

늘어야 하지만 그러면 黑이 82로 나외때 점을 노릴 수가 없다.

그런데 黑83이 두번째 완착. 이수는 참고2도의 黑1, 3이면 白은 4의 곳을 잡길수가 없으므로 역시 黑5로서 노리개 패가되어 쉽게 이길수 있었는데 실전은 白88까지로 역전된 셈이다. 【一凡】


참고 2도 / 참고 1도


구독신청은 533-2361

抗議 빗발…西獨-墺 1대0
12強서 알제리 따돌려

1골넣고 攻擊템포 늦춰 西獨
관중·解說者 "수치스런 競技다"
유럽10·南美2팀, 29일부터 2次리그

월드컵축구

◇기쁨 넘친 2次진출 2차리그에 진출한 북아일랜드 주장 마이클·오닐(6)이 기쁨에 넘쳐 관중들에게 인사하고있다. 뒤는 빌리·빙엄 감독과 함께. 【발렌시아AP=聯合】

【마드리드25日=聯合】 유럽 10, 南美2팀. 제12회월드컵 축구대회는 26일 새벽 (이하 한국시간) 북아일랜드·스페인·프랑스·서독·오스트리아 등 5개팀이 2차리그 진출권을 얻음으로써 12強을 확정했다.

12팀은 4개조 (1개조 3팀씩)로 나뉘어 29일부터 7월6일까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서 2차리그를 진행, 각조 1위팀이 준결승전 (9일)을 벌이며 대망의 결승전은 12일 새벽 3시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경기장서 진행된다.

26일 새벽 히혼서열린 1차리그 최종일 2조경기에서 西獨은 전반11분 흐루베시의 헤딩 결승골로 오스트리아에 1-0으로 신승, 알제리를 골득실차로 제치고 2차리그에 진출했으나 알제리팀과 수많은 관중들이 『西獨과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탈락시키기위해 서로짜고 경기를했다』며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날 북아일랜드는 후반2분 제리·암스트롱의 결승골로 홈팀 스페인을 1-0으로 제압, 5조서 유고를 떨어뜨리고 극적으로 2차리그에 올랐다. 북아일랜드의 노장 GK 패트·제닝스(37)의 활약은 대단했다.

4조경기서 잉글랜드는 전반24분 트레버·프란시스의 득점으로 쿠웨이트를 1-0으로 물리쳤다.

서독-오스트리아전에서 양팀이 1-0이후 갑자기 공격템포를 낮추어 미드필드서 소극적인 경기를 벌이자 4만여관중들은 『집어치워라』 『알제리가 이겼다』며 소동을 벌였고 스페인국영방송의 TV해설자는 『정말 수치스런 경기다. 유럽의 대표적 2팀의 경기를 보기위해 입장한 관중들은 긴말 실망하지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고 평했다.

◇1차리그 최종일

▲2조 서 독 1-0 오스트리아
등순위=①서독②오스트리아③알제리(이상2승1패 (골득실차) ④칠레3패

▲4조 잉글랜드 1-0 쿠웨이트
등순위=①잉글랜드(3승) ②프랑스(1승1무1패) ③체코(2무1패) ④쿠웨이트(1무2패)

▲5조 북아일랜드 1-0 스페인
등순위=①북아일랜드(1승2무) ②스페인(1승1무1패) (다득점) ③유고(이상1승1무1패) ④온두라스(2무1패)

◇1차리그통계

▲총득점=36게임·1백골 (게임당평균 2·77골) ▲최다득점선수=칼·하인츠·루메니게(서독) 4골 ▲1게임 최다득점=루메니게, 라슬로·키스(헝가리)각 3골 ▲최다득점팀=헝가리 (3게임·12골) ▲1게임 최다득점=헝가리 10골(對엘살바도르) ▲GK최장시간 방어=오스트리아 GK 프라이들·콘실리아 (1백91분 무실점) ▲최단시간득점=브라이언·롭슨(잉글랜드) 경기시작27초(對프랑스전)

◇개인득점(1차리그)

▲4골=루메니게(서독) ▲3골=키스(헝가리) 지코(브라질) ▲2골=암스트롱(북아일랜드) 에데르, 팔카오(이상브라질) 아사드(알제리) 파제카스, 닐라시, 폴로스케이(헝가리) 프란시스, 롭슨(이상잉글랜드) 마라도나(아르헨) 파넨카(체코) 디디에 샤크너(오스트리아) 시스(프랑스) 와크(스코틀랜드)

◇2차리그대진표

경기지역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조	B	D	A	C
조편성	잉글랜드 서독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아일랜드	폴란드 소련 벨기에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
경기장 한국시간	베르나베우(상오4시)	칼데론 (0시15분)	누캄프 (상오4시)	사리아 (0시15분)
29 일		오스트리아—프랑스	폴란드—벨기에	
30 일	서독—잉글랜드			아르헨—이탈리아
2 일		북아일랜드—오·프전패자	소련—폴·벨전패자	
3 일	스페인—서·잉전 패자			브라질—아·伊전패자
5 일		북아일랜드—오·프전승자	소련—폴·벨전 승자	
6 일	스페인—서·잉전승자			브라질—아·伊전승자

알제리 "勝負조작…兩팀失格"주장
西獨이 3點이상 이겼을경우 墺대신 알제리進出…重要게임
西獨 "비겼으면 우리가脫落…守備 치중"

월드컵通信

13일간의 열전을 계속한 월드컵 1차리그의 말미가 승부조작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문제의 경기는 26일새벽 열린 2조의 서독-오스트리아戰.

오스트리아 (2승·골득실차 플러스3)와 서독(1승1패·플러스2)의 대전서 서독은 비기거나 지면 2차리그진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점차이내로 서독이 이길경우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서독이 3점이상으로 승리할경우 서독과 알제리 (2승1패·골득실차0)가 2차리그에 올라가게 되는 중요한 대전이었다.

결과는 서독의 1-0승리.

알제리는 이경기가 조작이라며 양팀의 실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알제리의 주장은 서독이알제리를 탈락시키려고 오스트리아와 사전에 짰다는것.

이날의 경기내용은 의혹을 살만큼 뒤끝이개운치 않은것이었다.

서독의 흐루베시가 전반11분 한골을넣은뒤 양팀은볼을 돌리는등 전력을 다하지않는 인상을 주었으며 경기장에모인 4만관중은 시종야유를퍼부었다.

스페인관중들은 「알제리」「알제리」를 외쳐댔고 분노한 서독축구팬은 자기네국기를 불태워 항의했다.

경기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서던 서독선수들이 물통세례를 받는가하면 흥분한군중들이 호텔앞을 지키던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토마토를던지기도했다.

알제리의 알레미·세칼 축구협회장은 파렴치한 이번사건을 FIFA(국제축구연맹)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독의 데어발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서독에 대한 모욕적인언사』라며 조작설을 단호히 부인했다.

데어발감독은 『초반 20분처럼 활기찬 돌진을 계속하려했으나 골게터인 루메니게와 슈틸리케의 컨디션이 좋지않았고 또 만약 한골을 먹어 비긴다면 우리가 탈락하게돼 공격에만 치중할수도없는 형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런가하면 서독의 노이버거 축구협회장은 『서독이 安全運行의 느린축구를 한것은 아무도 참견할수없는 권리』라고 주장.

FIFA 부회장이기도 한 노이버거씨는 『FIFA의 규정중 이런경기를 제재할수있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6>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응달 ㉖

『너무 늦었어』

일환이의 목소리엔 깊은개탄이 배어있었다.

『뭐가?』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 좀 좋아.』

『왜, 그래, 오빠?』

『그동안 나 많이 변했다. 많이 나쁜놈 됐어. 그때 그런 말로 널 꼬실때처럼 순진하지 않아.』

일환이가 침울하게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비겨』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냐. 계집애가 나처럼 나빠졌으면 그걸 뭣에다쓰게』

오옥이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일환이의 마음 좋은것에 너무 많이 기대를 건게 아닌가 생각했다. 사람들이 빈택시만보면 부나비처럼 헤드라이트 속으로 뛰어들었고 차들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신호등을 무시했다.

일환이가 또 시계를 보았다. 시계를 보나마나 통금이 임박한 시간이었다. 일환이가 무언가 결심한듯이 차도로 뛰어들면서 빈 택시건 아니건 가리지않고 차길을 가로막는게 보였다.

오옥이는 강가에서 흐르는 물살을 바라본듯이 망연히 갑자기 조급해진 밤거리의 흐름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일환이가 거친 숨을 내뿜으며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택시도 잡아 본 놈이나 잡나봐. 내 더러워서』

오옥이는 대답하지않고 여전히 밤거리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저 많은 사람들과 차들의 광란이 갑자기 멎을뿐 아니라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때 덩달아서 사라질수 있을 것 같은 자포자기한 편안감을 맛보고 있었다.

『뭐라고 좀 그래 보렴』

일환이가 갑자기 그녀 앞으로 바싹 육박하며 화를 냈다. 마치 뒤에 흉기를 감춘것처럼 시퍼렇게 눈이 빛나고 있었다.

『오빠 내 걱정은 안해도 돼』

『어떻게 걱정을 안하니?』

그러면서 그녀의 손목을 아프게 잡아 끌고 달음질치기 시작했다.

『왜 이래?』

그녀는 끌려가면서 가날프게 물었다.

『여관에라도 들어가야지 어떻거니?』

『여관?』

『놀라긴』

오옥이는 놀라지 않았건만 제풀에 놀란 그가 이렇게 투덜거렸다. 뒷골목으로 돌자 여관의 불빛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들은 마치 물이끈에 게 물린것처럼 숨가쁘게 그중의 하나로 뛰어들었다.

일환이가 더듬거리며 힘겹게 방을 구하는사이 오옥이는 그의 큰몸집뒤에 얌전하게 숨어 있었다. 새앙쥐처럼 작고 영리해뵈는 소년의 안내로 긴복도를 꼬부라져 도는동안도 줄창 기차놀이하듯 이 그의 뒷자락에만 매달렸다.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일환이는 껄끄럽게 말했다.

『뭐가?』

오옥이는 웃으면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웃음이 참녀처럼 헤프게 보이리라는걸 알면서도 웃음을 지울수가 없었다.

일환이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이부자리와 재떨이만 있는방에 두사람은 남겨졌다.

『미안해』

流星의 賦 <418>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⑯

『잠깐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원용이 악을 썼다.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놈의 코를 꿰려는 것을 잠깐 멈추게 하고 계남이 무슨 말인가 해보라고 했다.

『나는 널 안다. 홍계남을 안다. 네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수모를 나는 안다. 너의 외조부되는 분이 누군가도 나는 안다. 그래도 너는 분을 발할 줄도 모르는가? 임금의 아들이면 천의 자식이건 천모의 자식이건 임금이 되어 지존(至尊)으로 받드는데 어찌하여 신하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홍생을 두고 왜가왈부 하는가 말이다. 넌 억울하지도 않았는가. 양반 자식 천명이 달라들어도 못할 공적을 세워 겨우 수원판관(水原判官), 부사도 못되는 그 여겨운 자리 하나 얻었다고 사내 대장부의 뺄을 잃어? 나라가 뭐데. 임금이 뭐데. 나라도 내게 잘 못하면 적국이다. 다를 바 없다. 이놈도 날 핍박하면 나의 적이다. 그래서 나는 내 요량대로 싸웠다. 내 요량대로 살아왔다. 나를 죽이는 건 쉽지만 인지상정(人之常情)은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놈 듣거라. 내가 있기 전에 있는 것이 부모이며 나라다. 내게 어떻게 대하건 임금은 지존이다. 잘못된 제도이면 공론을 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고래로 충신은 일신의 처우를 돌보지 않고 나라와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천하의 정도이다. 너는 이놈아, 너 행실로서 반역하고, 정도를 어김으로써 천하를 문란케 하는 비글 비겁한 놈일뿐이다. 내 종친(宗親) 가운데서 역도(逆道)를 내길 꺼려하여 너의 반성을 촉구했거늘 추호도 회개의 빛이 없으니 네 코를 꿰어 나무 가지에 산채로 걸어 본뵈기로 할것이니라』

『나는 이왕 네놈들 손에 죽게 되었으니 이미 각오한바 있지만 너 홍계남의 무식이 가소롭구나. 나는 내 소신을 펴기위해 일시적으로 왜놈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이다. 너는 춘추(春秋)를 읽지 않았느냐. 사기(史記)를 읽지 않았단 말인가. 무식한 놈의 충(忠)은 우마(牛馬)의 충일 뿐이다. 나는 내 소신(所信)에 충성을 다한다. 좌절해도 나는 내 소신을 관철했다는 뜻으로 장부가 되는 것이지만 너나 네 일당은 썩은 새끼를 철색(鐵索)으로 알고 있는 가소로운 놈들이다』

『왜놈에게 붙어 일신의 위안을 탐해 동족을 괴롭힌 놈이 무슨 아가리를 놀리고 있느냐. 저놈의 코를 꿰어 당장 나무가지에 걸어라』

이윽고 이원용은 코를 꿰어 산채로 광교산허리의 교송(喬松)에 걸리는 바 되었다.

이때 신불의 말이 있었다.

『비겁한 놈에게 어찌 저런 담력이 있었을까요』

『저건 담력이 아니고 발악이다. 발악을 담력으로 잘못 알아선 안되지』

하고 홍계남이 침울한 얼굴이 되었다. 사실 홍계남 자신도 이원용의 그 대담한 태도에 적잖이 놀라고 있었던 터였다. 비록 발악이라고 할망정, 이원용의 태도는 당당했던 것이다. 계남이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쉽구려 놈이 빗나간 생각을 고칠수만 있었다면 나라를 위해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회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주일성경 1: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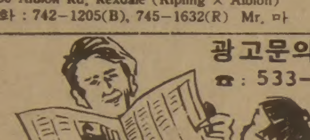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램톤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 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회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진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토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완인태권도 [漢字 도장명 판독불가]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전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위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조 지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Part Time (시간당 $7.00)
건축일에 취미있으신 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다른차에서 안나가실때 나와 주세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햄버거식당 동업자 구함.
8월1일부터 확장계획임. 23 Helen St. Missi.
주중 9:00a.m.~18:00p.m. 전화 : 274－7010 (Mr. You)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20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가정에서 봉재일 하실분 연락바람.
전화 : 530－104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구직

스토아 매니져.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2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이상. 리스: 2년+5년.
렌트 : $600, 아스킹 : $98,000+스탁(All Cash)
꼭 관심있으신 분만 내방바람. 전화 : 767－0762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2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주중 9:00a.m.~18:00p.m.)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 $4,500 + 로타리오(3 Bed Room포함)
리스 : 8년 전화 : 421－5151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Varity Store for Sale(Hamilton) 전화 1－529－7491
(1)Store with 3 Bed room House. 년매상: $110,000 계속증가.
(2)Business only. 년매상: $300,000+곧 써브머린 open(최고지역)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게지 Hold해 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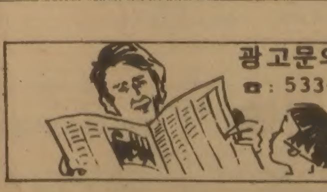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블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은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